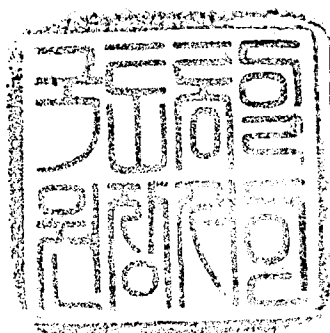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南北單一팀 構成・參加關聯

第1次 南北體育會談 會議錄

1989. 3.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附錄：代表團記者會見	69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89.3.9 (木) 10:00 ~ 12:10

나. 場 所 : 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p style="text-align: center;">〈首席代表〉</p>	<p style="text-align: center;">〈團 長〉</p>
<p>張 忠 植 (大韓올림픽委員會 副委員長)</p>	<p>김 형 진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李 學 來 (大韓올림픽委員會 常任委員)</p>	<p>장 응 (조선올림픽위원회 서 기 장)</p>
<p>任 台 淳 (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김 세 진 (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p>張 炳 朝 (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허 혁 필 (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p>朴 秀 蒼 (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김 상 부 (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會 議 錄

2. 會 議 錄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張忠植) : 반갑습니다.

北(김형진) : 예. 반갑습니다.

南(張忠植) : 앉으십시오.

北(김형진) : 예.

南(張忠植) : 우리 代表들을 紹介하기에 앞서서 信任狀을 交換할까요?

北(김형진) : 예. 그렇게 합시다.

(雙方 首席代表 信任狀 交換)

北(김형진) : 오늘 날씨 상당히 좋습니다.

南(張忠植) : 예. 참 봄날 같구만요.

어떻습니까? 북쪽도 날씨가 따뜻하지요?

北(김형진) : 예. 날씨가 좋습니다.

요 며칠전에는 비까지 왔습니다.

南(張忠植) : 예. 그렇습니까?

北(김형진) : 내려오면서 보니까 땅도 이제 물을 머금고…….

이제는 農事 大豊될 것 같습니다.

南(張忠植) : 예. 일찌감치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을 보니까 우리들의 會談도 잘 돼갈 것 같습니다.

北(김형진) : 예. 물론 잘 되어야지요.

우리 代表들을 먼저 紹介해 드릴까요?

南(張忠植):예.

北(김형진):여기 앉은 분이 우리 올림픽委員會 장웅書記長입니다.

아마 아실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앉은 분이 우리 올림픽委員會 허혁필委員입니다.

다음에 여기 앉은 분이 우리 올림픽委員會 김세진委員입니다.

여기 아마 舊面인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앉은 분이 우리 올림픽委員會 김상부委員입니다.

저는 김형진이라고 합니다.

南(張忠植):우선 저부터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張忠植입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부터 차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만 우리 올림픽委員會 李學來先生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계신분이 우리 올림픽委員會 張炳朝先生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앉으신 분이 우리 올림픽委員會 任台淳先生이시고, 저쪽에 앉아계신 분이 우리 올림픽委員會 朴秀蒼先生이십니다.

北(김형진):저는 이제 初面인 것 같은데, 어쩐지 體育人들의 무어라 할까 開放的인 性格에서 그런지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一同웃음)

南(張忠植):예. 우리 또 張先生님은 「로잔느」에서도 몇번 제가 만났고요, 또 같은 宗氏이고…… 여기 우리 張先生님 계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虛心坦懷하게 서로 마음을 열고서 對話를 하게되면 體育會談이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北(김형진):先生님, 前에 무슨 運動하셨습니까?

南(張忠植):저는 럭비를 했습니다.

北(김형진):럭비하셨습니까? 저는 배구를 했습니다. 배구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體育도 다 같습니다만, 이제 競技란 손발이 잘맞고 호흡이 잘 맞아야 競技가 잘되고 成果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南北體育人들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데, 우리 무슨 北이다 南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前에 한 팀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南(張忠植) : 참, 그렇던데요.

北(김형진) : 예. 그래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그저 唯一팀을 成事시키려는 이 會談을 體育人式으로 좀 주욱 내밀어 봅시다.

南(張忠植) : 日氣가 이제 좋아지는 것도 보니까 우리 會談을 祝福해주는 것 같고요. 모두가 單一팀을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쏟고 서로 理解하는 立場에서 서로 對話를 잘 나눌 것 같으면 우리 겨레가 바라는 그런 單一팀이 되지 않겠나 하는 希望을 갖고 나왔습니다.

北(김형진) : 본래 會談에 나오면서도 빨리 우리가 北南으로 別個의 팀으로 國際競技에 나가는 것보다도 하루속히 唯一팀을 구성해야 하겠다는 것은 外國에 나가서 國際競技를 할 때마다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首席代表 先生! 9次 亞細亞競技大會때 가셨습니까?

南(張忠植) : 어디요?

北(김형진) : 9次 亞細亞競技大會, 印度에서 할 때……

南(張忠植) : 그때에는 제가 못갔습니다.

大學에서 教鞭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北(김형진) : 印度에 나는 그때에 갔었는데 그때 아마 決勝에 우리가 拳鬪 네개 키로級에서 北하고 南의 選手들이 決勝에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

었습니다.

그때 決勝競技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北의 選手하고 南의 選手가 지금 권투 링에 올라가서 決勝競技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競技를 하니가 서로 이길려고 하고 아무래도 권투니까 치게 마련이고 그런데 한 海外同胞가 선수들 경기하는 그 앞에서 觀衆들을 向해서 『여러분 제발 이러지들 마시오』하면서 哀願하는 목소리, 『한동포끼리 이게 무슨 짓입니까?』하고 그 통절히 바라는 소리를 들을 때 다시는 이렇게 別個의 팀으로 勝負를 겨루고 이러지 말아야 겠다 하는 것을 통절히 느끼기도 했습니다.

南(張忠植):저도 金團長님과 똑같은 經驗을 했습니다만 저는 유니버시아드大會에 네번 團長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쪽 學生들과 북쪽 學生들이 外國사람 보는데서 서로 이길려고 이렇게 했을 때, 같은 同胞끼리 말이죠.

外國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힘겨운 이러한 對決을 한다는거…… 이게 하나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 힘이 강하게 나타날까 말씀이죠? 특히 「고베」유니버시아드大會 때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동포가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서 거기서 응원을 하고 또 選手는 選手들끼리 南과 北으로 갈라져서 試合을 한다고 했을 때, 이긴다고 하는 것 보다도 마음의 負擔이 이거 어떻게 우리 體育指導者들이 이번 에 잘 會談을 해 가지고서 우리 靑年들이 南과 北이 하나가 되어서 한 兄弟가 되어서 世界 여러사람들 보는데서 우리의 훌륭한 點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北(김형진) : 首席代表先生!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唯一팀을 하루빨리 構成하는데 마음이 합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야 오늘 會談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南(張忠植) : 예.

北(장 옹) : 잘 될 것 같습니다.

北(김형진) : 본래 體育人이란 남한테 지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 저러한 會談들이 지금 日程에 오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 體育人이 이런 氣質을 발휘해서 다른 會談보다 앞장서서 決勝테이프를 좀 끊어 봅시다.

南(張忠植) : 아주 좋습니다.

南(任台淳) : 오면서 느꼈는데 이번 우리 會談이 한두차례 만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몇번째 만나는 것인데, 저는 이번 경우는 다른 때 보다도 상당히 다른 面面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무엇이냐 하면 우리 國內言論이 이번 會談은 무엇인가 될 것만 같다, 그동안 會談이 몇번 있었지만 사실 그때에는 여기 金先生님도 계시고 張先生님도 다 舊面들인데, 그동안 會談이 우리 國民들이 民族이 바라는 그런 方向으로 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우는 餘裕도 있는 것 같고 雙方이 벌써 봄눈 녹듯이 지금 마음들이 풀어지고 오늘 또 서로 相面해서 첫번째 보니까 서로들 잘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넘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北(김형진) : 아, 任先生! 그렇게만 覺悟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마 代表 先生들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서 競技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이 잘되어야 마지막까지 잘되지 競技가 本來 始作이 꼬이기 시작하면 收拾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會談인데 어디 우리 시작을 잘 풀면서 어디 마지막 매듭까지 좀 단숨에 어디 잘 해봅시다.

다른 會談이야 걸어가는 心情으로 했다면 우리야 體育人式으로 냅다 달리는式으로 해봅시다.(一同웃음)

南(張忠植) : 빨리 되어야 하겠는데,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지요.

北(김형진) : 예. 그럼요.

南(張忠植) :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가야죠.

北(김형진) : 서로 이렇게 넘어지면 이끌어도 주고……

南(任台淳) : 넘어지면 이끌어 주고……

北(김형진) : 그럼요. 그렇게하면 成事가 잘 될 수 있습니다.

南(張忠植) : 어떻게 우리 좀 會談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造成되는데 會談을 잘 할 수 있도록 整理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北(장 응) : 任先生은 원래 무슨 運動을 하셨습니까?

南(任台淳) : 蹴球를 좀 했습니다.

北(장 응) : 예. 蹴球했습니까?

南(任台淳) : 잘하지는 못했고……

北(장 응) : 어느 位置였습니까?

南(任台淳) : 守備였습니다. 우리 젊어서 이야기입니다.

南(李學來) : 金代表께서는 스키이트選手였었는데 重責을 맡으셨다고……

北(김세진) : 예, 그렇습니다.

南(張炳朝) : 初面입니다.

北(김상부) : 民族의 統一念願이 다 그런 것 같이 우리 體育會談 잘해 봅시다.

南(張炳朝) : 한번 해봅시다. 대부분 서로 讓步하고……

南(張忠植) : 張先生은 籠球하셨됐지요?

北(장 옹) : 예. 그렇습니다.

北(김형진) : 任先生은 몸이 좀 날팠겠습니까?

南(任台淳) : 예. 좀…….

南(朴秀蒼) : 許先生, 「로잔느」에 오셨죠?

北(허혁필) : 예. 「로잔느」에 오셨던가요?

南(朴秀蒼) : 예. 두번 갔었습니다.

南(李學來) : 지금 冬季올림픽大會 하고있지 않습니까?

北(김세진) : 이번 大會는 큰 選手權大會하고 겹쳐서 選手權大會에 가고…

요새 소련에서 開催한 大會에 參加했는데 아주 성적이 괜찮아요.

全種目에서 1等하고, 綜合戰績도 1等하고……

北(김형진) : 李先生님은 무엇을?

南(張忠植) : 李學來先生은 지금 漢陽大學에 계십니다.

南(張炳朝) : 우리 남쪽 體育人들도 이번 會談은 다른 會談과 달라서 서로가 이제 뭘 해내야 되겠다는 霧圍氣가 돼있습니다.

南(李學來) : 겨울스포츠는 그 쪽이 活潑하지요?

北(김세진) : 季節的 條件이 아무래도 남쪽보다 좀 有利한 點이 있지요.

南(張忠植) : 어제 平壤에서 오셔서 開城에 계셨나요?

北(김형진) : 예. 우리는 어저께 開城에 와서 쉬고 이렇게 아침에 나왔습니다.

南(張忠植) : 저희는 가까우니까 뭐 괜찮습니다만……

北(김형진) : 예. 아마 한시간 걸릴 것 같죠?

그럼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南(張忠植) : 예.

北(허혁필) : 任先生도 「로잔느」에 가셨던가요?

南(朴秀蒼) : 예. 繼續가셨지요. 저는 두번 갔었는데, 張先生님이 원채 키가 크시니까(一同웃음)

北(김형진) : 그래서 이번 會談을 發起했고 이래서 먼저 發言할까 하는데 貴側에서 특별한 事情이 있다고 하면……

南(張忠植) : 우리側에서 場所를 마련했으니까 우리側에서 말을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만 굳이 貴側에서 먼저 말씀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北(김형진) : 그 쪽에 特別한 事情이 없으시다면 제가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南(張忠植) : 예. 좋습니다.

北(김형진) : (우리側 隨行員席을 向해) 물좀 주시겠습니까?

張先生! 오늘 會談은 우리 民族의 重大事를 討論하고 또 온 民族뿐만 아니라 世上 사람들 다 지켜보는데 會談은 그냥 公開로 하지요?

南(張忠植) : 예. 그럼요. 公開하는게 좋겠죠.

特別한 事由가 없는 이상 말입니다.

北(김형진) : 貴側의 議程은 아까 貴側의 信任狀에서도 表示된 바 같이 「第11次 아시아競技大會에 北南唯一팀을 構成해서 出戰할데 대하여」이 議程을 그냥 討論하도록……

南(張忠植) : 表現上에 서로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立場에서는 그저……

北(김형진) : 예, 그건 貴側에서 좋을대로……

南(張忠植) : 「第 11 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問題」라고 이렇게 우리는 議題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北(김형진) : 예, 그건 그렇게 합시다.

北(장 응) : 表現에서는 각기 부르도록 합시다.

北(김형진) : 便利한대로 합시다.

南(朴秀蒼) : 意味가 다르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南(張忠植) : 너무 表現에 얽매이면 서로……

北(김형진) : 예, 그럼요.

南(任台淳) : 出發부터 잘되는 것 같습니다.

北(김형진) :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좀 그래서 돋보기를 써야 합니다. 諒解하십시오.

〈北側 첫 發言〉

首席代表先生과 代表여러분!

오늘 우리는 內外人民들의 커다란 期待와 關心속에서 第 11 次 亞細亞競技大會에 北과 南이 唯一팀으로 參加하기 위한 雙方 올림픽委員會 代表들의 會談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먼저 北과 南의 체육대표들이 唯一팀으로 國際競技에 出戰할 것을 갈망하는 體育人들과 人民들의 念願을 안고 이렇게 마주앉게 되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唯一팀을 구성하기 위한 北南體育會談이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은 체육인들은 雙手를 들어 열렬히 환영하면서 北南代表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첫 唯一팀을 세상에 내놓을 것을 절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北과 南의 체육인들이 지금처럼 別個의 팀으로 國際競技에 나가 서로 優劣과 勝敗를 겨루며 對決하는 가슴아픈 비극은 더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半萬年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疆土위에서 和睦하게 살아 온 우리 민족이 外勢에 의해 強要된 分裂의 苦痛만도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 체육인들마저 國際競技에 나가 서로 맞서 승벽내기를 하는 것은 民族의 羞恥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重要한 國際競技大會가 있을 때마다 北과 南이 唯一팀을 구성하여 출전하기 위한 體育會談을 가질 것을 發起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誠意와 努力을 다하여 왔습니다.

民族的 團合과 統一을 志向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念願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의 이러한 積極的인 發起와 努力은 세상사람들 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우리 人民들과 체육인들에게 고무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물론 北南唯一팀을 구성하기 위한 우리측의 노력이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거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北과 南, 海外의 各界各層 人民들 속에서는 北南사이의 反目과 對決을 解消하고 民族的 團合과 나라의 平和統一을 이룩하려는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 있으며 그것은 막을 수 없는 潮流로 되고 있습니다.

國際的 範圍에서도 紛爭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하며 緩和와 和解의 方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체육인들이 民族自主精神과 救國統一의 意志를 가다듬고 北南唯一팀을 構成함으로써 民族의 和解와 團合, 나라의 平和統一

에 기여하기 위하여 共同으로 努力해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12月 21日 貴側에 편지를 보내여 1990年 9월에 열리게 되는 第11次 亞細亞競技大會에 北과 南이 唯一팀으로 出戰하는 問題를 討議하기 위한 北南體育會談을 發起한 것은 어떻게 하나 同族이면서도 서로 대결해야 하는 비극을 가시고 끊어진 民族의 團合과 統一에 이바지하려는 진지하고 성실한 立場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愛國的 提議에 貴側이 呼應하여 이번에 北南體育會談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體育會談을 成功시켜 唯一팀을 구성하고 第11次 亞細亞競技大會에 共同으로 출전하면 民族의 團合된 偉力과 슬기를 세계 만방에 誇示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며 그렇게 되면 北南사이에 수십년 세월 굳게 얼어붙었던 隔閉狀態는 봄날의 눈송이처럼 녹고 民族의 최대 숙원인 祖國統一은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만큼 우리 雙方 대표들의 使命과 任務는 실로 막중한 것입니다.

사실상 北과 南이 第11次 亞細亞競技大會에 唯一팀으로 出戰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자리에 모인 雙方 代表들이 어떻게 努力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雙方은 唯一팀을 구성하는 것이 北南體育人들의 期待에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 民族의 슬기와 단결된 위력을 萬邦에 誇示하고 나라의 平和統一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처럼 마련된 體育會談을 반드시 成功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雙方이 올바른 會談姿勢와 原則에 서서 問題討議에 성실히 참가해야 합니다.

첫째로, 雙方은 祖國統一 3大原則에 따라 民族的 和解와 團合, 統一에 寄與하려는 姿勢와 原則을 堅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自主·平和統一·民族大團結의 祖國統一 3大原則은 民族共同의 里程標로서 北南사이의 모든 問題를 풀어나가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根本原則으로 되고 있습니다.

祖國統一 3大原則을 떠난 體育問題解決이란 사실상 아무런 意義도 없습니다.

우리가 唯一팀을 구성하여 第11次 亞細亞競技大會에 出戰하려는 것은 競技에서 메달을 많이 爭取하는데도 目的이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民族的으로 和解하고 團合을 實現하며 統一을 앞당겨 이룩하려는데 實質的인 目的이 있습니다.

北南雙方은 唯一팀構成問題를 반드시 民族的 和解와 團合, 統一을 이룩하려는 姿勢와 立場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雙方은 民族的 利益을 最優先 順位에 놓고 民族的 利益에 부합되는 唯一팀을 구성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民族은 制度 이전의 것입니다.

體育을 하는 것도 民族을 위한 것입니다.

雙方은 思想과 制度를 앞에 놓던 對決의 觀念에서 벗어나 민족을 優先 視하고 民族的 團合을 이룩하는 方向으로 轉換하여야 합니다.

雙方이 민족의 利益과 名譽를 위하여 唯一팀을 무으려고 마주앉은 이상 制度的 利益을 앞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會談過程에 意見相異가 있더라도 民族的 利益을 전면에 내세워 서로 差異點을 좁히고 합의점을 摸索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姿勢와 原則에만 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온 겨레가 期待하는 唯一팀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째로, 雙方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 지혜를 최상의 水準에서 宣揚하고 發揮할 수 있도록 唯一팀을 構成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슬기와 재능, 지혜를 빛내여 온 민족입니다.

北과 南이 各個가 아니라 唯一팀을 構成하여 國際競技들에 출전한다면 우리 體育人들의 슬기와 재능을 世界 萬邦에 남김없이 誇示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貴側도 우리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네째로, 雙方은 北南唯一팀 構成問題를 解決하는데서 인위적인 난관이나 복잡성을 조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한민족, 한혈육이면서도 서로 別個로 國際競技들에 出戰하여 온 北과 南이 오늘에 와서 唯一팀을 구성하려면 여러가지 복잡한 問題들이 提起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雙方이 어떻게하나 唯一팀을 構成하려는 立場에서 서로 양보도 하고 아량도 보인다면 얼마든지 복잡한 問題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姿勢와 原則으로부터 출발하여 作成한 우리의 北南唯一팀 構成方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第 11 次 亞細亞競技大會에 北과 南이 唯一팀으로 參加하기 위한 方案

1. 唯一팀名稱

唯一팀名稱은 우리 말로 <고려선수단>이라고 하며 英文字로 <KORYO>

로 쓰고 略字로는 <KRY>를 사용하게 한다.

2. 唯一팀기발

흰색바탕에 黄土色 우리나라 地圖를 그려넣고 그 아래에 푸른색이나 붉은색으로 <KORYO>라고 쓴 기발로 한다.

3. 唯一팀노래

아리랑으로 하되 1920년대 북쪽과 남쪽에서 부르던 아리랑으로 한다.

4. 唯一팀 選手選拔 原則과 方法

1) 選手選拔原則

- ① 北과 南에서 가장 優秀한 選手를 選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 ② 北과 南사이에 民族的 和解와 團合을 이룩하는데 寄與하는 原則에서 選拔한다.
- ③ 北과 南은 될수록 唯一팀에 種目別로 北과 南의 選手 및 指導員들을 함께 包含시키는 原則에서 選拔한다.

2) 選手選拔方法

(1) 唯一팀構成 準備段階의 共同訓練에 參加할 選手選拔

- ① 北과 南이 각기 決定하도록 한다.
- ② 모든 種目別 選手選拔은 北과 南이 各各 第11次 亞細亞競技大會 組織委員會가 정하게 될 競技參加定員數 정도로 하되 種目別 特性에 따라 必要한 人員數를 協議하여 選拔하도록 한다.
- ③ 對象訓練을 必要로 하는 種目に 대하여서는 該當種目 北南代表들이 따로 協議하여 選手數를 決定하고 選拔하도록 한다.

(2) 唯一팀選手選拔

- ① 記錄種目 境遇에는 共同訓練期間 여러차례 進行한 選拔競技의 記錄

을 綜合的으로 考慮하면서 最終選拔競技記錄을 위주로하여 選拔한다.

② 採點制 勝負評價種目は 共同訓練期間 外國選手團들이 함께 參加하는 公開招請競技를 進行하여 選拔한다.

③ 맞붙어 勝負를 가르는 種目들은 共同訓練期間 實力과 이미 進行한 選手들의 國內外競技戰績을 考慮하여 該當種目の 北南代表들의 協議의 方法으로 가능한 北南의 均衡을 保障하는 方向에서 選手들을 選拔한다.

④ 北南 어느 한측에서만 種目を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측이 該當種目에 대하여 唯一팀으로 出戰하도록 한다.

⑤ 한개의 細部種目に 2名の 選手가 參加하는 경우에는 北과 南에서 各各 1名씩 包含하도록 한다.

5. 指導員 및 保障成員

① 共同訓練段階에서 팀種目들에 한하여 北과 南은 種目當 (男女區分된 種目は 男女種目) 각기 2명씩의 指導員을 選拔하며 個人競技種目에서는 北南이 均衡을 維持하면서 必要한 數만큼 選拔한다.

② 競技大會에 參加하는 指導員數는 亞細亞競技大會, 技術規程에 準하여 北南間의 指導員數의 均衡을 維持하도록 한다.

③ 保障成員(의사, 안마사, 연구사, 기재관리공, 배수리공, 요리사 등) 들의 選拔과 그 數는 따로 討議合意하여 執行한다.

6. 選手, 指導員 및 保障成員 選拔時日

① 共同訓練段階의 選手, 指導員 및 保障成員選拔은 늦어도 1989年 8月까지 끝내도록 한다.

② 競技大會에 參加하게 될 選手, 指導員 및 保障成員들의 最終選拔은 팀

種目は 1990年 5月까지, 個人競技種目は 1990年 7月까지 끝내도록 한다.

7. 訓練

- ① 訓練은 種目單位로 北과 南을 오가면서 한다.
- ② 訓練은 될수록 北과 南의 選手, 指導員들을 配合하는 原則에서 進行하도록 한다.
- ③ 訓練期間 種目別 北南代表들의 合意에 따라 外國遠征競技와 外國選手團들을 招請하여 競技들을 進行할 수 있다.
- ④ 訓練은 1989年 9月부터 시작한다.
- ⑤ 訓練에 必要한 모든 條件은 訓練場所를 提供하는 側에서 責任지고 保障한다.

8. 競技大會에 參加할 選手團指揮部

- ① 第 11次 亞細亞競技大會에 參加하는 選手團指揮部에는 北과 南에서 각기 選出되는 共同團長 2名을 두어 選手團을 管理하고 代表하도록 한다.
- ② 副團長, 事務長도 같은 方法으로 2名씩 둔다.
- ③ 選手團과 關聯되는 중요한 問題에 대하여서는 共同團長, 共同副團長, 共同事務長들이 합의하여 決定하도록 한다.
- ④ 選手團에는 總指揮부와 그 아래에 種目別 指揮부를 둔다.

9. 唯一팀을 위한 共同常設機構

- ① 唯一팀의 共同訓練, 唯一팀選手選拔, 北南來往 競技大會 參加事業의 組織指揮 및 管理, 北南사이에 提起되는 問題들과 國際 및 亞細亞體育機構들, 競技大會組織委員會와의 連繫를 말아보게 될 共同事務局을 내온다.
- ② 共同事務局의 名稱은 本會談에서 합의되는 唯一팀名稱을 덧붙여 부른다.

- ③ 共同事務局에서는 北과 南에서 各各 1名씩 派遣하는 共同事務局長 2名과 必要한 部署 및 成員들을 둔다.
- ④ 共同事務局의 事務室은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休憩室에 정하며 雙方이 協議하여 옮길 수 있다.
- ⑤ 選手團은 共同訓練期間 北南으로 오갈 때에는 共同事務局이 특별히 發給하는 證明書を 쓰도록 한다.

10. 費用

- ① 共同訓練期間의 一切 費用은 訓練場所를 提供하고 있는 측에서 負擔한다.
- ② 共同訓練期間 外國遠征競技를 가게 되는 경우 一切 費用은 遠征競技 準備를 시키다가 出發시키는 측에서 負擔한다.
- ③ 共同訓練期間 外國選手團들을 招請하여 競技를 하는 경우 一切 費用은 競技場을 내고 組織하는 측에서 負擔한다.
- ④ 唯一팀의 亞細亞競技大會參加와 關聯한 費用은 北과 南이 共同으로 負擔한다.

11. 身邊擔保

北과 南을 오가면서 共同訓練을 하는 경우 相對側 成員들에 대한 身邊安全擔保는 身邊安全保障覺書を 交換하는 方法으로 保障한다.

12. 其他

- ① 唯一팀의 服裝, 運動服, 機材, 携帶品, 裝具類 등의 形式, 색깔, 표식 등은 共同事務局에서 決定한다.
- ② 亞細亞競技大會에 參加할 唯一팀의 出發과 到着地點은 民族的 和解와 統一意識을 높여주도록 北과 南에 公平하게 정한다.

第 11 次 亞細亞競技大會에 唯一팀으로 參加하기 위한 우리의 方案은 以上과 같습니다.

우리의 唯一팀構成方案은 體育分野에서 一般的으로 適用되고 있는 慣例에 맞게 作成되고 北과 南의 現實을 考慮한 合理的인 方案이며 더우기 지난 시기 會談들에서 貴側이 내놓은 案들도 충분히 考慮하고 있는 公明正大한 方案입니다.

우리는 스포츠精神과 기백을 發揮하여 우리의 會談이 활짝 꽃피게 하고 풍만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貴側이 民族앞에 지닌 重大한 責任感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측의 方案을 진지하게 대하며 肯定的인 호응이 있기를 期待하면서 發言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南(張忠植)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側의 立場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 우리側 基調發言 >

北側代表 여러분!

나는 오늘 南北의 體育人들이 이처럼 한자리에 마주 앉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5年前 바로 이 板門店에서 南北體育會談이 일시 進行된 이후 體育分野에서는 對內外的으로 여러가지 큰 규모의 國際的 行事들이 치러졌습니다.

1984年 第23回 로스앤젤레스 올림픽大會, 1986年 第10回 서울아시아

競技大會와 지난해의 第24回 서울올림픽大會는 그 가운데에서도 代表的인 例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南北의 體育인들이 서로 協力하고 團合된 모습을 우리 겨레와 세계 앞에 보여주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世界의 모든 나라들은 理念과 體制를 超越하여 和解와 協力, 開放과 共存의 길을 追求하고 있습니다.

南北의 온 겨레 또한 오랜 反目과 對決構造를 과감히 清算하고 和解와 團合을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體育人들은 이같은 內外情勢의 趨勢와 民族的 興望에 副應하기 위하여 마땅히 體育分野에서의 相互 交流와 協力の 實現을 위해 最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見地에서 나는 來年 9月 北京에서 열릴 예정인 第11回 아시아競技大會에 南北이 單一팀을 構成하여 參加하는 問題를 놓고 協議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南北間에는 國際競技에 出戰할 單一팀 構成問題를 여러 차례에 걸쳐 論議한 經驗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進展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民族이 한결같이 統一을 渴望하는 것처럼 南北의 體育人들은 各種 國際體育競技大會에 單一팀을 構成하여 參加할 수 있게 되기를 希望해 왔습니다.

南北間的 和解와 協力을 위한 노력이 窮極的으로는 民族共同體의 形成과 平和統一을 指向하는 것임을 想起할 때 南北 單一팀 構成은 이러한

目標과 理想을 體育分野에서 實現하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理想과 目標은 단순한 希望이나 主張만으로 成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成就하고자 하는 實踐意志를 바탕으로 相互尊重과 讓步의 精神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體育分野에서의 接觸과 交流의 經驗을 착실히 蓄積시키고 이를 통해 相互信賴를 두터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여러차례에 걸친 單一팀 構成協議의 經驗을 거울삼아 이번 會談에서 좋은 結實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努力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代表團은 이번에는말로 南北 單一팀 構成·參加를 기필코 成事시켜야겠다는 確固한 決意를 다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以上과 같은 趣旨에서 나는 이 會談의 議題를 「第11回 北京아시아 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問題」로 할 것을 提議하고 이에 대한 우리側 方案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方案

첫째, 選手團의 呼稱은 國際적으로 通用되고 있는 로마字 「KOREA」

로 表記하고 우리말로는 「南北單一팀」으로 表記한다.

둘째, 選手團의 團旗는 흰색바탕에 綠色 韓半島地圖를 넣고 그 아래에

로마字 「KOREA」를 表記한다.

셋째, 選手團의 團歌는 우리 民族의 民謠인 「아리랑」으로 한다.

넷째, 選手團 構成

1. 團長은 選拔된 選手의 數가 많은 側에서 맡고 副團長은 選手의 數가 적은 側에서 맡는다.
2. 任員 및 選手構成은 OCA 憲章 및 該當 國際競技聯盟規則에 따른다.
3. 競技任員은 種目別로 選拔된 選手의 數가 많은 側이 監督을 적은 側이 코치를 맡도록 하며, 本部任員은 雙方의 選手比率에 따라 構成하되 具體的 任員數는 雙方合意에 따라 定한다.

다섯째, 選手團의 團服

1. 團服의 디자인은 雙方 專門家들의 諮問을 얻어 決定한다.
2. 團服의 標識는 雙方이 合意한 團旗 및 選手團 呼稱에 따름을 原則으로 한다.
3. 團服의 製作經費는 共同負擔으로 하되 雙方 合意에 따른다.

여섯째, 選手選拔은 南北의 區別없이 種目別로 가장 優秀한 選手를 選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1. 全 種目に 대해 選手를 選拔한다.
2. 選手選拔을 위해 交換競技를 實施한다.
3. 選手選拔戰은 各 種目別로 서울·平壤 등 雙方이 同意하는 南北의 地域에서 번갈아 1回 以上 實施한다.
4. 어느 一方에 特定種目の 選手가 없거나 適合한 選手를 保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選手를 保有하고 있는 側에서 選拔한다.
5. 選手選拔의 具體的 方法, 選拔戰 時期, 競技用 機具, 競技規則, 審判選定 등 其他 細部的인 事項은 雙方間에 協議·決定한다.

일곱째, 選手訓練

1. 種目別 訓練은 選手가 選拔된 種目부터 可及的 빠른 時期에 實施한다. 訓練은 南北의 既存施設을 利用하여 相互往來하며 實施하되 必要할 때에는 第3의 場所 施設을 利用할 수도 있다.
2. 選手訓練에 대한 細部事項은 雙方 合意에 따른다.

여덟째, 雙方은 選手選拔戰 및 訓練을 위해 自己側 地域에 들어온 相對側 選手團의 身邊安全과 歸還을 保障하는 「選手團身邊安全保障覺書」를 交換한다.

아홉째, 選手團의 經費

1. 選手團 構成 및 出戰에 따른 經費는 選手 및 任員의 構成比率에 따라 南北이 共同負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2. 選拔戰 및 訓練은 相互主義 原則에 따라 招請側에서 必要한 經費와 便宜를 提供한다.

열째, 雙方은 單一팀 構成 및 參加問題를 具體적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南北單一팀 共同委員會」(以下 共同委員會라 함)를 設置·運營한다.

1. 共同委員會는 單一팀 構成·參加方案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진 後 1個月 以內에 構成한다.
2. 共同委員會는 雙方 올림픽委員會 및 競技團體 代表로서 各 10名 內外로 構成한다.
3. 共同委員會는 서울과 平壤을 往來하면서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가. 選手選拔 및 訓練에 관한 事項

나. 選手團 構成 및 管理에 관한 事項

다. 大會 開催期間中 열리는 各種 會議參加 代表 및 大會審判 選
定에 관한 事項

라. 各種 文化藝術行事 參加에 관한 事項

마. 其他 單一팀 構成 및 參加에 다른 諸般 事項

4. 共同委員會의 運營을 圓滑히 하기 위해 서울·平壤에 共同事務局
을 각기 設置한다. 雙方은 適正數의 連絡人員을 共同事務局에 각
각 派遣·常駐시키고 直通電話를 架設·運用한다.

나는 以上으로 第11回 아시아競技大會 南北單一팀 構成·參加를 위해
이 會談에서 協議·決定해야할 單一팀 構成·參加方案에 대한 우리側 立
場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우리側의 立場은 民族團合과 體育精神에 充實할 뿐
만 아니라 과거 南北體育會談의 經驗과 貴側의 主張까지도 考慮한 것임
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 雙方이 眞摯하게 協議를 해 나간다면 이번 會談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으로 確信합니다.

貴側의 肯定的인 呼應이 있기를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北(김형진) : 首席代表先生의 이야기를 지켜 들었습니다.

貴側에서는 第11次 아시아競技大會 唯一팀을 構成하기 위한 方案을 提
起해 왔고 또 우리側에서도 이미 提起했고, 그래서 首席代表先生의 方案

을 整理해 보면 벌써 서로가 一致되는 점도 있고 또 이것으로 해서 會談이 앞으로 成事될 수 있다는 希望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反面에 서로 意見을 달리하고 相馳되는 問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唯一팀 노래를 비롯해서 기타 選拔問題에서도 一定한 項目들은 一致하는 점도 있고 그래서 兩側에서 내놓은 方案들을 한條項씩, 한條項씩 合意하는 方法으로 討論하는게 어떻겠는가.

南(張忠植) : 참 좋습니다.

貴側에서 말씀하신 가운데 저희와 큰 말은 나오지 않더라도 團歌라든가 노래 이런 것은 저희와 똑같은 意見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呼稱問題, 또 몇가지 貴側과 우리와 表現上 用語가 다름니다만, 團長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들이 된다든가 또는 한사람이 된다든가 하는 것이 저희와 뜻이 다른데, 그걸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北(김형진) : 물론 우리가 差異나는 점들도 있는데, 차이나는 점도 있지만 一致되는 점들을 더 살려서 그런 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呼吸이 맞고 벌써 體育式으로 손발이 맞는다는 소린데 그런 것들에 基礎해서 넓혀나가고, 그 다음에 意見上 差異되는 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民族共同의 利益을 먼저 생각하고 民族앞에 무엇인가 큰 膳物을 내놓자는 立場에만 선다면 얼마든지 合意點을 좁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南(張忠植) : 選手團 呼稱問題인데요 ……

北(김형진) : 그러니까 方案討議 始作하자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方案討議 始作합니다. 첫째 …… 가만 貴側의 方案內容을 넘겨주실 수 있으면 ……

南(張忠植) : 제것을 드릴까요?

이거 하나 따로 마련했습니다. (우리측 基調發言文을 건네줌)

北(김형진) : 감사합니다.

貴側에서도 唯一팀 名稱을 첫 條項으로 넣으셨습니다. 맞습지요? 그래서 唯一팀 名稱問題를 먼저 우리가 討論합니다.

南(張忠植) : 지금 우리가 對內外的으로 通用되고 있는 것은 「KOREA」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로마字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KOREA」 이걸 뭐 우리 측이나 귀측이나 다 「KOREA」로 쓰는데, 이걸 우리말로 表記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여러번 意見이 갈라져 가지고서 合意를 못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北京에 가며는 外國말을 쓰지 않겠느냐 또 아시아의 對外共用語는 英語가 되니까 서로의 우리말 表現에 피차간 讓步할 수 없는 이러한 名稱을 固執하다 보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北(김형진)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首席代表先生 말씀 잘하셨습니다. 雙方이 다 接受될 수 있고 이 名稱問題도 그렇지 않습니까? 名稱問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名稱이 北南 唯一팀을 象徵하는 選手團의 名稱인 것 만큼 누구나 봐도 北南唯一팀이라는 것을 인차 가려볼 수 있게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重要的 것은 우리 民族의 特性이나 民族의 志向같은 것 또 民族의 傳統같은 것이 反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번째로는 唯一팀 名稱을 命名하는데서는 어느 一方의 要求를 相對方에 강요해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原則에서 唯一팀 名稱이 選定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貴側에서 方案을 提起했는데 英語로 「KOREA」라고 提起했죠? 이 「KOREA」라는 名稱은 貴側에서 지난 時期

별개의 팀으로 貴側에서 달고 나가던 이름이지요?

또 우리는 反面에 競技大會에 나갈 때 우리 名稱을 「DPR KOREA」라고 달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唯一팀을 構成하자는 會談에서 貴側의 立場을 無視하고 『우리 DPR KOREA 로 합시다』이렇게 提起하면 아마 貴側에서도 『아, 그거야 相對方의 尊嚴을 훼손시키는데 어떻게 接受하겠는가?』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려」그대로 表記하는데는 저희측이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唯一팀 名稱을 制定하는데서 考慮해야 할 원칙들을 놓고 그래서 「고려」를 擇했는데, 이것은 雙方이 어느 별개팀 이름으로 나갔거나 尊嚴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우리가 強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려」로 했는데, 이 「고려」로 말하면 우리 「KOREA」의 語源도 「고려」國家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또 「고려」로 놓고 말하면 선생님 잘하시겠는데 統一國家로서 근 500年 동안 存在해 있었고, 또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측에서도 우리측의 무엇을 代辯하는 것도 아니고 貴側에서도 무얼 代辯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國際적으로 널리 알려졌다는 또 「KOREA」의 語源을 두고 있다는 이런 世界的인 見地, 다른 하나는 歷史的인 見地, 民族 傳統的인 見地, 또 하나는 貴側에서도 「고려」 이름을 즐겨 쓰지 않습니까? 모든 무엇을 命名할 때…… 이런 것만큼 「고려」라는 이름을 뒤에 숨은 무엇이 있다든가, 그 어떤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南(張忠植): 어차피 우리가 單一팀이 돼서 나간다고 假定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外國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單一팀을 「KOREA」라고 부르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는가 말씀이죠.

北(김형진) : 「KOREA」라고요?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別個의 팀으로 貴側에서 올림픽에 참가했을 때도 「KOREA」로 됐었죠?

南(張忠植) : 예, 물론 그렇습지요.

北(김형진) : 그 다음에 世界 種目別 選手權代會에 나갈 때는 「KOREA」로 되고

南(張忠植) : 단지 이제 地域的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集團性을 말하지 않고 地域的인 면에 있어서 「South Korea」다 「North Korea」다 이렇게들 많이 말하거든요.

北(김형진) : 그거야 일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南(張忠植) : 그런데 우리가 外國에 나가서 「고려」라고 이렇게 불었을 때 「고려」가 뭔가하고 사람들이 「고려」에 대해서 상당히 懷疑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側에서 우리말로 내놓지 않은 理由는 이 名稱 때문에 體育會談의 본질적인 이러한 會談이 毀損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北(김형진) : 아, 옳습니다.

南(張忠植) : 그러한 마찰을, 表現의 마찰을 피해야 되겠다 해서, 물론 우리가 「大韓」이라고 내세울 수도 있는데 「大韓」이라고 하는 것은 1897年 우리가 엄연히 獨立國으로서, 世界에 말이죠 우리가 獨立國이라는 것을 宣言을 했고 또 우리가 1919年 3月1日 全國에서 만세운동이,

獨立運動의 이러한 열기가 있는 이후에 4월에 수립된 우리나라의 臨時政府도 上海에서 「大韓」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면 지금 金團長님께서 「고려」는 統一國家로서의 名稱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新羅」라는 것도 三國時代에 高句麗, 百濟를 統一을 해서 統一新羅時代도 있는 것이고 말씀이죠.

그러면 新羅나 高麗나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單一팀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지난 우리 歷史의 名稱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歷史學者的인 立場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그것을 「고려」다, 또는 「大韓」이다, 「新羅」다 이런 여러가지 말을 내놓는다고 하게 되면 이거 아마 오늘 시간이 말이죠, 하루종일 다가도 合意를 보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北(김형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張先生님께서 「KOREA」라고 表記하는 問題는 明白하지 않습니까? 理致적으로 봐도 體育式으로 툭 털어놓고 말하면 조선말로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자, 唯一팀을 또 혹은 조선말로 이제 貴側先生이 提起한 대로 빌어 말하면 조선말로 「南北唯一팀」이라고 하고 英語로 「DPR KOREA」라고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方案을 提起하면 意見이 더 相馳되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貴側에서 이제까지 달고 나가는 이름이 「KOREA」라고 했는데, 아 이제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이게 唯一팀이라는 것이 우리 民族史에도 없는 것이고 그토록 갈망하는 것인데, 互相 다 接受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貴側에서 英語로 여태까지 쓰시던 「KOREA」를 唯一팀 名稱으로 모자를 씌우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때까지 國際體育機構聯盟들에 등록된 表記가 「DPR KOREA」

로 됐는데……

張先生님께서도 잘 아시면서…… 理致的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南(張炳朝)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現在 名稱問題에 관해서는 兩側 首席代表님께서 충분한 意見開陳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雙方이 研究를 해서 다음 會議에 討議를 하도록 하고, 이제 兩側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한번 더 研究하는 機會를 가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합니다.

北(허혁필) : 團長동무! 제가 좀……

이제 뭐 이러저러한 意見이 나왔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번 體育會談이 좀 어떻게 成事가 돼서 唯一팀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見地에서 公正하게 하자는 이런 立場에서 提起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라고 우리가 提起를 한데 대해서는 우리 團長同志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서 「KOREA」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KOR-EA」는 이제도 얘기됐습니다만 이것이 남쪽에서 지금까지 나갈 때 그런 名稱으로 대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唯一팀 構成한 다음에도 그렇게 하고 나간다면 이게 한쪽에는 좀 接受가 되지 않는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名稱아래도, 이제 우리 그쪽 問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是非를 할 생각도 없고 좀더 研究를 해 본다는 것도 一理가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저 우리 民族의 特性 이런 것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말로도 表記할 때도 그저 「南北」하면 이게 어디 「南北」이나, 이런 것도 잘 떠오르지 않고 말입니다.

北(김형진) : 그 民族이 「南北單一팀」, 「南北」이라는 것이 地域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게 民族앞에 世界萬邦에 우리 한 民族이 唯一팀을 構成했다는 데 「南北」 자 이게 어느 쪽의 「南北」인가. 이렇게도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民族의 特性을 反映하는 이름을 달아야지 「南北唯一팀」 생각좀 잘 해보세요.

北(허혁필) : 歷史의 見地에서 보면 뭐 어느 이름을 단다고 貴側에서 正식으로 提起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 도중에 나온 것인데 뭐 「고려」를 달자 하니까 「新羅」를 달자 혹은 뭐 「大韓」을 달 수도 있다, 뭐 이런 式으로 하는데, 다른 것은 더 얘기 안하고 우리 新羅로 보면 물론 歷史觀들이 다 다릅니다만 엄연한 史實의 見地에서 볼 때 新羅는 사실상 全土를 統一한 것이 못됩니다. 大同江 以南地域만 했고 또 新羅로 말하면 한 민족이 三國으로 分裂이 되어있을 때 統一한 方法에 대해서 볼 때도, 우리가 歷史學者들의 學術討論會는 아닙니다만, 外勢와 한 짝이 되어서 형제의 나라를 滅한 그런 것이 아닙니까?

南(張忠植) : 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高麗」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의 韓半島의 地圖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領域을 차지하지 못했고 또 高麗王朝를 세운 王建을 중심한 이러한 그 당시의 支配階級을 본다고 하며는 그것도 歷史적으로 矛盾이 있는 하나의 支配階級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요……

北(김형진) : 아, 이거 體育人인데 뭐 歷史……

北(장웅) : 首席代表 先生! 다른 것은 그저 얘기할 것은 없고 우리 엄연한 事實로 등록돼 있는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國際올림픽委員會에 登錄되어 있는 것이 그쪽에서 지금 「KOREA」로 登錄돼 있습죠?

南(張忠植): 그렇게 돼 있죠.

北(장 응): 그러니까 우리 이거 좋은 일 하면서 互相讓步를 하고 相對側의 尊嚴을 서로 保障해 주는 것이 같이 일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 首席代表 先生이 말씀했는데 『高麗라고 하면 세상사람들이 알겠느냐』 이랬는데, 아 우리가 지금 唯一팀을 創造하는 것입니다. 創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한번 創造해 봅시다. 창조해서 世上에 한번 알려 봅시다. 우리 民族이 世界에서 누구한테 뒤떨어지겠습니까?

南(張忠植): 물론 單一팀을 만들자는데 거기에 대한 適合한 名稱을 여기에 우리가 내놓지 않은 것은 서로가 讓步의 精神을 가지고 과거에 누차 名稱問題로 인해서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말 表記를 피해야 되겠다 해서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假想的으로 「南北單一팀」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여기에서 呼稱問題 가지고서는 우리가 「고려」다 뭐다 이렇게 긴 時間을 얘기해도 結末짓기 어려우니까는, 좀더 이 문제는 雙方이 말이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貴側에서 研究해서 다음에 이 問題를 얘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北(김세진):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首席代表 先生이 좀더 연구를 해서 좋은 方案을 내자는데 대해서는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名稱問題를 좀 研究를 해서 좋은 名稱을 내도록 하

기 위해서 제가 생각되는 것은 우선 현재 우리 나라가 갈라져서 北과 南이 서로 競技에 나갈 때마다 자기 이름을 달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名稱을 定하는 데서 절대로 어느 一方의 名稱을 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쪽의 尊嚴을 毀損하는 그런 感이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討論할 적에는 雙方의 名稱은 다 덮어놓고 정말 우리 團長先生이 얘기하신 것처럼 民族的으로나 또는 우리 體育적으로나 또는 民族和合의 見地에서 보나 이런 여러 側面에서 뜻이 있는 이런 公正한 名稱을 選定해야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側面에서 좀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우리 選手團의 名稱은 우리 體育쪽으로 놓고 볼 적에 대체 다 그저 자기나라 이름들을 달고 나가는 것이 하나의 常例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朝鮮民族의 傳統도 있고 世界萬邦에 떨치는 그런 우리 民族의 좋은 이름을 하나 달고 나가면 더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研究를 하시면서도 이런 것들을 考慮하면서 또 體育의 그런 하나의 慣例들도 보시면서 名稱을 公正하게 이런 意味에서 정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南(張忠植) : 우리側에서도 이 問題에 대해서는 좀 널리 專門家들하고 우리가 研究를 하고 相議를 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 體育人들 立場에서 이 名稱가지고 여기서 이 名稱좋다 또 貴側의 名稱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 봐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되고 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雙方이 納得할 만한 이러한 名稱을 우리가 찾아내는데 서로 努力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北(김형진) : 예, 옳습니다.

아주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문제 넘어가는데 反對가 없습니다. 反對가 없는데 제가 한가지 勸告하고 싶은 말씀은 조선말 表記에서 「南北唯一팀」 이렇게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南北」이건 地域的인 表示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唯一팀을 구성해 나가는 朝鮮民族의 팀인데, 이것을 남쪽과 북쪽이 합해 「南北」으로 나간다면 세상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理解해 주셔야 하고.

다른 하나는 또 본래 貴側에서 提起한대로 「南北唯一팀」을 조선말로 하자면 깃발에도 英語로 「南北唯一팀」이라고 表記를 달아야 하지, 조선말은 다른 소리로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쓰는 것은 다른 소리로 하고 그러면야 一致되지 않습니다.

세상사람들한테 오히려 混沌을 줍지요. 이런 것 하나야……

南(張忠植) : 우리가 한글로 表記를 한다든가 또는 漢文으로 表記를 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사람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지만 外國에 나가서 單一팀으로서 우리가 活動을 할 때는 어차피 외국말로 쓰게 된다 이겁니다. 외국말로 쓰게 되니까……

北(김형진) : 예, 그렇기 때문에 原則적으로 하시면야 이름이 또 英語로 표시돼야 정확히 알지, 이거 조선말이 다르고 英語는 또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代表團 先生 동무들이 다 얘기했지만 어느 一方이, 이거 唯一팀 아닙니까? 좋은 것 하는 것이고.

이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世上에 처음 誕生시키는 것인데 雙方에

다 接受되고 또 그 이름이 愛稱이 되고 選手들 속에 또 民族이 그 이름을 부르면 民族的 自負心이 나고, 이런 勇氣와 선수들에게 말하자면 勇氣와 氣魄을 주게 하고 全 民族으로 말하면 그 이름이 愛稱되게 하고 부르기 쉽고 이런 意味에서 앞으로 더 研究합시다.

南(張忠植) : 그렇게 하셔야죠.

반드시 「고려」라고 해서 그것이 民族的인 思考나, 「大韓」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高麗」라든가 「新羅」 그 다음에 「高句麗」, 우리가 많은 外侵을 받아가면서 그 인접의 民族들과 抗爭을 하면서 살아왔다가 1897년에 「大韓」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淸나라 宗主國에서부터 獨立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大韓」이라는 이름도 좋은데 여기서 이 名稱가지고 더 얘기 안하기로 하고 雙方이 더 연구하도록 합시다.

北(김형진) : 「大韓」하고 「고려」하고야 다르죠. 「고려」야 第3의 이름이고 「大韓」이야 貴側이 쓰던 이름인데 「大韓」하고 「고려」를 또 대치시키면 됩니까? 맞지 않아요. 더 研究합시다. 더 研究하고……

南(任台淳) : 더 研究하기로 하는데는 저도 同感인데요, 우리가 지금 英語 表記를 하는데 「KOREA」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貴側에서는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다소간의 혹시 誤解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側이 「KOREA」라는 用語를 表記하자고 내놓은 理由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KOREA」라고 하는 것은 貴側도 나라이름을 「KOREA」라는 말을 넣어서 表記하고 있고……

北(김형진) : 「DPR KOREA」죠.

南(任台淳) : 예, 그러니까 역시 固有名詞 「KOREA」에다가 붙인 것이고,

또 우리의 경우에도 나라이름을 부를 적에 「KOREA」라는 말을 넣어서 부르고 있고 또 사실 그중에서 어느 부분을 떼어서 쓰고 있느냐, 안쓰고 있느냐 하는 것은 別個 問題로 하더라도, 말하자면 南과 北이 共通으로 쓰고 있는 國名가운데 共通點을 찾자는 그러한 취지가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首席代表께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으로 「KOREA」라고 하면 지금 世界萬邦에서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KOREA」를 빼놓고 다른 어떠한 이름을 갖다 붙여놓더라도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게 어디 新生國인가』 전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國際的인 狀況이고, 그래서 國際的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알기로는 貴側에서도 과거에 會談을 할적에 記錄을 볼 것 같으면, 「KOREA」라는 用語를 쓰자고 貴側에서 提起한 일도 있고 또 南北間에 사실상 意見이 接近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KOREA」라는 말로 合意를 보는데는 사실 우리가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趣旨에서 우리가 「KOREA」라는 말을 택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말로 는 왜 안 넣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말로 넣는 것은 새로운 統一國家의 國名을 정하기 以前에는, 貴側도 尊嚴, 尊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쪽이나 북쪽이나 사실 지금 現實的으로 두개의 實體가 있잖습니까?

두개의 實體를 서로가 傷하는 方法으로 이름을 정하기는 참 어렵겠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互讓의 精神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體育人 精神을 가지고서 문제를 合意를 하려면 결국 어느 한쪽의 이름을 쓰는 것보다도, 이 우리말로의 表記라는 것은 國際社會에서 「KOREA」라고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統一팀, 單一팀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우리야 그저 單一팀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겠는가. 그건 왜냐하면 우리 內的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은 名稱을, 새로운 名稱이 共通點이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南北單一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趣旨에서 우리가 提案을 했다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北(김형진) : 다 말씀하셨습니까? 首席代表先生님! 난 또 團長先生이 다음 議題에 넘어가자 그래서 넘어간줄 알았는데 저기 任先生이 또……

南(任台淳) : 내가 發言權을 얻었으니까.

北(김형진) : 아, 그렇다면 좋습니다. 다음 議題에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任先生 옳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옳게 말했다고 한건 무엇인가 『어느 한쪽 一方의 이름을 쓰지 말아야 한다』 원칙은 맞는데 實踐하고 맞지 않는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때요 任先生 그렇지 않습니까?

(一同웃음)

그다음 다른 하나는 過去의 무슨, 우리 오늘 옛날하고 오늘 時代가 다르고 우리가 마주 앉은거야 現時點에서 討論하자고 한것이지 過去의 옛날 文書쪽을 들어서 잘잘못을 들어서 이렇게 할 必要야 있습니까?

그러나 過去는 역시 우리가 對決의 時代에서 思考한거고 現時點은 和解와 團합을 이루고 統一偉業 成就에 기여하기 위한 唯一팀 構成인데, 任先生 또 過去의 것을 끄집어내니까 난 또 過去會談처럼 처음 시작할 때 처럼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죠? (一同웃음)

南(任台淳) : 아니 貴側에서 그렇게 提起한 적이 있었다……

北(김형진) : 난 지금 또 뭘 생각했나하면, 過去 會談하는 것 想起하니까 또

옛날처럼 會談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南(張忠植) : 그제 아니고요, 過去에 그런 명칭 때문에 ……

北(장 웅) : 귀측에서 高麗大學도 있지 않습니까?

北(김형진) : 그제 아십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首席代表先生 다음 議題 討議로 넘어갑시다.

다음 두번째 議題는 깃발이지요, 唯一팀 깃발.

南(張忠植) : 네, 깃발인데, 우리는 흰색바탕에 아마 貴側도 흰색이라 아주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綠色으로 韓半島 地圖를 그려서 넣구요, 그 안에 로마字로 「KOREA」로 하자.

名稱關係가 지금 서로 이렇게 되니까, 깃발은 우리가 이렇게 提案을 했습니다. 단지 貴側에서 저희와 統一되는 것은 흰색바탕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하고 지금 意見이 맞지요?

北(김형진) : 그것도 成果입니다.

나는 이제처럼 좀 비틀어져 나갈줄 알았는데(웃음) 거기서 흰색이 하나 맞으니깐 信心이 생깁니다.

地圖하고 돌입지요 둘, 대단한 겁니다. 셋중에 둘인데, 命名이 하나있지요. 아 그럼 대단한거지요, 색이야 黃土色이면 어땡고 그건 관계없는데, 그러니깐 셋중에 둘이 合意됐는데 아주 대단한 前進입니다. 名稱問題에.

首席代表先生! 貴側의 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側 案을 이야기하겠어요.

南(張忠植) : (北側 發言文을 보며) 몇페이지에 있지요?

北(김형진) : 첫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8 페이지.

우리측은 『唯一팀 깃발을 흰색바탕에 黃土色 우리나라 地圖를 그려 넣고 그 아래에 푸른色이나 붉은色으로 「고려」라고 쓴 깃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唯一팀 깃발을 選定하는데 考慮한 것은 朝鮮民族의 民族的 特性 또 다른하나는 朝鮮民族의 志向과 目標가 뚜렷이 反映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世上사람들이 보면 아 저거는 朝鮮이고 또 우리 民族이 唯一팀이 들고가는 그 깃발을 우러러 볼 때도 朝鮮民族 唯一팀 깃발이라고 볼 수 있도록 이런 目的에서였습니다.

(準備한 깃발을 꺼내 보이면서) 우리측이 준비한 唯一팀 깃발은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흰색바탕에 黃土色의 朝鮮地圖를 그리고 그 아래에 「KORYO」라고 英文字로 쓰는데 색깔은 푸른색 또는 붉은색, 습意만 보됩니다. 內容에 대해서 說明하겠습니다. 이 흰색바탕은 우리民族의 깨끗한, 순수한 白衣同胞 또 우리民族이 單一民族이라는 뜻에서 흰색바탕을 두었습니다.

또 朝鮮地圖를 그린 것, 바탕의 가운데에 朝鮮地圖를 그린 것은 統一된 하나의 疆土 또 統一된 하나의 祖國을 志向해서 朝鮮地圖를 그렸습니다. 또 다른 세제 朝鮮地圖를 그린 것은 우리 民族이 北南唯一팀이라는 것을 世上萬方에 시위하기 위해서 朝鮮地圖를 그렸습니다.

이 아래 英文字로 쓴 푸른색깔 또는 붉은색깔은 우리측의 깃발에도 그 색깔이 포함되어 있고 貴側의 깃발에도 포함되어 있는 색깔일 뿐만 아니라 五輪에도 表示되어 있는 색깔입니다. 이런 것을 考慮해서 우리들은 唯一팀의 깃발을 民族的 特性和 民族의 志向과 目標로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朝鮮地圖의 黃土色 이것은 우리나라 土壤의 特色을 反映하고 있습니다.

南(張忠植): 저희 立場에서 흰색을 내세운 것은 물론 貴側에서 말씀한 것

과 共通點도 있습니다만, 우선 옛부터 우리겨레는 白衣民族이라고 하는 흰옷을 좋아하고 純潔을 좋아하고 그래서 흰색을 우리 겨레의 象徴으로 흰색을 表現한 것이고 그다음 地圖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韓半島地圖에 綠色을 넣는 것은 希望을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民族의 念願인 祖國統一이라고 하는 여기에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生命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貴側에서 말하는 唯一팀이라든가 우리側에서 말하는 單一팀이라는 것이 새로이 탄생되었을 때에 우리 民族의 念願을 成就시키는 하나의 새로운 希望과 새 生命이 솟아난다는 뜻에서 푸른색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깐 푸른색, 黃土色 이러한 색깔은 다 一長一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좀더 研究가 되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側에서 提案한 團旗와 貴側에서 表示한 團旗를 봐서 서로의 意見을 접근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北(김형진) : 接近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깃발에 세가지 표식이 있는데 색깔, 地圖 그 다음에 命名이 있는데 命名은 앞으로 우리가 名稱問題를 討論하면 자연히 붙는거고, 그러니깐 地圖와 흰색은 合意됐는데 색깔이 우린 黃土色이고 貴側은 綠色이지요?

南(張忠植) : 地圖색깔이 보면 黃土色도 있고 푸른색도 있거든요, 소위 뭐냐면 들판은 대개 地圖에 보면 푸른색으로 나타나고 또 山岳地帶은 黃土色으로 그려진다 이거예요, 잘 配合를 할 것 같으면 좋은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

北(김형진) : 아니 首席代表先生! 志向을 統一된 志向을 색깔로 表示해서야

안되지요. 하나의 疆土 統一된 祖國을 志向하려면 아 지금까지 두토막이 나있는 이 疆土를 하나로 連結시키는 이런 志向이 더 強하고 民族도 더 좋아하는게 아닌가.

南(張忠植) : 두가지 색깔로 그리자는 것이 아니라 地圖上에 나타나는 색깔이 山岳地帶는 黃土色으로 그리고 또 平野는 대개 푸른색, 綠色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깐 그 중에서 어떤걸 擇하든지간에 다른 좋은 색깔도 생각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單一色으로 넣는다는데 대한 쌍방이 흰색도 同時에 뜻이 맞는 거구요, 그 밑에 앞으로 呼稱이 決定됨에 따라서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이 定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北(김형진) : 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잘되는데 깃발問題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前進이 있습니다.

흰색바탕, 朝鮮地圖 이거는 口頭로 合意합시다. 任先生 어떻습니까?

南(任台淳) :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北(김형진) : 글썄, 좋고 그다음에 朝鮮地圖를 그린다. 이거는 口頭로 누릅시다.

그 다음에 黃土色이나 綠色이나 이건데, 이거는 색깔이 黃土色이 된다 그래서 貴側의 自尊心 후릴것도 없고 하여튼 이걸 앞으로 合意點이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색깔인데 이거야 뭐……

南(張忠植) : 제 생각같아서네요. 앞으로 實務的인 그러한 면에서 對話가 잘 進展되고 會談이 成熟되면 雙方의 專門家들이 말씀이죠. 雙方의 專門家들이……

北(김형진) : 아, 또 張先生님, 地圖를 專門하는 사람은…… 우리 體育人들이 조금 민족앞에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꼭 專門家들한테……

南(張忠植) : 아니 그런데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北(김형진) : 그렇게 하면 畫家들 얹혀놓고 어느 것이 좋은가 한번 물어 봐야지.

南(張忠植) : 그래도 地圖를 그린다든 것은 간단한 問題입니다만 그 색깔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색깔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고 말씀이죠, 또 거래에 따라서 좋아하는 꽃이 있고 싫어하는 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黃土色」이 좋다 또는 「綠色」이 좋다 이렇게 固執할 問題가 아니고 말씀이죠.

北(김형진) : 張先生은 綠色을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南(張忠植) : 예, 저는 綠色을 좋아합니다. 이미 제가 主張을 했는데요. 저는 畫家는 아니고 「스포츠맨」으로서 綠色, 푸른색 또 우리가 만나는 계절이……

北(김형진) : 글썄 어쩐지 張先生이 主張하신 것 같아요. 綠色 좋아하시는 것 보니까(一同웃음)

南(張忠植) :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專門家들한테 諮問을 求하고 또 貴側에서 提案하신 「黃土色」도 저희들이 專門家를 통해서……

北(김세진)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地圖의 색깔문제 가지고 서로 意見이 좀 相異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제 首席代表 先生도 얘기를 했지만 색깔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런 색깔 좋아하고 저런 색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색깔

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린게 아니고 우리 風土 그대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接受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理解하시면 뭐 이 問題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실게 없지 않겠느냐.

또 貴側에서 내놓은 색깔은 「綠色」으로 하는데 우리 民族의 장래의 志向과 希望을 상징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물론 우리 민족의 휘황한 장래를 상징하신다는 그런 側面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징을 하는게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밑에 文字表記이 있기 때문에 表記하는 색깔을 그런 색깔로 하시면 그 뜻도 담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보면 이 깃발문제에 대해서 相互異見을 가질게 없지 않겠느냐 하고, 오늘 會談이 아주 信賴의 분위기 속에서 進展되는 것이 상당히 기쁜 일인데 이 한 문제라도 이렇게 해서 合意를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南(張忠植) :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地圖를 갈라놓고 그려 놓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單一팀 만들면서 지도에다가 두 색깔 갖고 나가는 것은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單一팀 만들어 가면서 우리 겨레의 상징, 우리 겨레가 살고 있는 韓半島地圖를 두가지 색깔로 하고 나간다는 것은 저도 拒否하고 싶습니다.

단, 어느 색깔로 택하느냐 이것은 다 一長一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선생님들이 내세운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내세운 색깔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절충하되 문제는 國旗가 이것만 가지고 合意될 수는 없는거구요, 그 밑에 呼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측의 색깔을 귀측에서 좋다고 하면 그 밑에 호칭에 대한 글을

쓸 때는 또 귀족의 것도 쓸 수 있고 말이죠. 앞으로 좀더 우리가 의견을 좁힐 수 있지 않겠느냐.

北(김상부) : 그래서 이제 名稱과 呼稱問題를 놓고 기본적으로 우리 團長 同志도, 말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合意點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地圖에서 「綠色」이나 「黃色」이나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내놓은 案도 귀족에서 研究해 볼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 地球上에는 黑人도 있고 白人도 있고 우리 朝鮮사람들은 黃인이 아닙니까? 그런 意味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조선 사람들이 黃인에 속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 地圖의 색을 보게 되면 黃色이 짙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考慮해서 좀 研究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南(張炳朝)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색깔 문제는 사실 보는 見解에 따라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또 귀족에서 주장하시는 理論도 背景이 다 있고 저희들 측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다 背景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說往說來하기 보다는 原則적인 큰 두 가지 문제가 合意되었으니까, 地圖의 문제는 나중에 地圖의 색깔문제하고 밀의 글자에 들어가는 색깔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名稱問題가 결정이 되면 그 때에 서로가 좀 더 研究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曰可曰否하지 말고 研究하는 時間을 조금 더 가집시다. 어떻습니까?

北(김형진) : 그렇게 합시다. 首席代表先生! 貴側의 의견도 提起했고 또 우리측의 意見도 충분히 서로 제기했는데, 뒤에서 조금 색깔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족에서는 「綠色」이 希望을 상징하고 물론 색깔이 希望이 있고, 즐겨보는 색깔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측이 志向과 希望, 目標를 選定한 것은 統一된 國家가 아니겠습니까? 귀족도 다 같은 共感에서 여기 나오신 것 만큼 그래서 統一된 國家인 것 만큼 民族의 志向과 目標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측의 主張은 民族의 志向과 目標를 색깔로 표시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강토, 하나의 地圖에서 表示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理解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문제를 가지고 民族의 統一된 志向과 希望을 表示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綠色을 꼭 해야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귀족에서 돌아가서 좀 연구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예?

南(張忠植) : 이것은 雙方 다 研究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北(김형진) : 그제 明白히 하실 것은 오늘 두번째 唯一팀 깃발문제에서는 첫문제에 비해서 보다 우리, 體育式으로 前進했습니다. 「흰색바탕, 朝鮮地圖를 그려 넣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본적인 唯一팀의 깃발은 세상에 형틀이 나왔습니다. 아, 흰색바탕에 朝鮮地圖를 그리는 것이 우리 唯一팀, 우리 民族의 唯一팀 깃발이다 하는건데, 거기에 이제 무슨색깔을 넣느냐 또 무슨 命名을 하는가 이제 그것만 남았는데 깃발은 그렇게 口頭로 이전 완전히 合意한거로 이제 우리가 宣布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이 두번째 문제, 뭐 唯一팀 깃발에서 이제 合意點을 찾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뭐 合意點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南(張忠植) :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저 노래 말씀인데요.

北(김형진) : 예, 말씀하십시오.

南(張忠植) : 지금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우리 民謠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을 貴側에서는 어떠한 「아리랑」을 말합니까?

北(김형진) : 그래서 우리 제가 말씀드리지요. 우리 「아리랑」은 이제, 20年代 北과 南에서 다같이 부르던 이런 「아리랑」으로 또 우리 民族이 그토록 愛唱하던 노래, 아마 뭐 다른 것 없어요.

(隨行員席을 향해) 거, 노래……

北(장 응) : 그게 말입니다. 羅雲奎先生의 「아리랑」의 主題曲입니다.

(北側은 카세트 錄音器로 錄音된 「아리랑」을 들려줌)

北(김형진) : 어떻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리랑. 아, 이거 정말 이렇게 하니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 빨리 이 아리랑을 들으면서 한번 줌…

南(張忠植) : 참 우리가……. 오늘 이마당에 하나가 되고 말씀이죠. 서로 참, 血管에 南과 北의 피가 같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北(김형진) : 아, 首席代表先生도 아마 이젠 좀 年歲가 있는 것 같은데 競技場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一同웃음)

北(김세진) : 이 노래야, 정말 우리 人民의 崇高한 感情世界를 아주 풍부히 이렇게 담았고 또 그 노래를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그 崇嚴합니까?

南(張忠植) : 그렇지요.

北(김세진) : 그래서 다 이제 느끼는 것처럼, 아주 이 노래로 하는 것이 매우 좋지 않겠느냐……

南(張忠植) : 우리가 世界 여러나라에 가면 많은 同胞가 살고 있지 않습

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한겨레라고 하는 것을 意識하는 것은 김치하고 이 아리랑입니다. (一同웃음)

北(김형진): 오늘 또 感懷가 깊습니다. 北南 唯一팀 構成을 해서 11次 아시아競技大會에 唯一팀을 出戰시키는 이런 會談에서 이 아리랑이 울려 퍼지니까 어쩐지 이 唯一팀 構成이 막 앞당겨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휩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南(張忠植): 아, 참 좋습니다. 이러한 光景을 兩側에 살고있는 우리 同胞가 오늘 이러한 和氣靄靄한 이러한 雲圍氣속에서 우리가 아리랑 노래를 말이죠, 우리 民族의 노래로서 또 單一팀 노래로서 이것을 同時에 約束이나 한 것처럼 말씀이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역시 民族의 피는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것은 否定할 수 없는 歷史의 罔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現場에서 확인한 겁니다.

北(김형진): 아! 좋습니다. 우리 單一民族이고, 아리랑 노래 그저 이견 合意됐습니까? 묻기도 전에 벌써 이견 다 된 것으로……

北(김상부): 그건 合意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消息을 받아보면 말입니다. 北과 南의 人民들이 아마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北(김형진): 그래서 이견, 그저 뭐 자연히 다 合意된 것입죠? 예?

南(張忠植):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견 길게 얘기할 필요없고 단지 그저 서로가 感激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좋겠습니다.

北(김형진):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오늘 보십시오. 벌써 우리가 세 가지 문제를 討論했는데, 아리랑은 提起되자마자 그저 無事通過입니다. 이게 合意

된 것으로(一同웃음)

두번째, 唯一팀 깃발도 이젠 「프로」수로 말하면 한 70%, 한 70~80%?

北(장웅): 그거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北(김형진): 그러면 흰색바탕에 朝鮮地圖 그렸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누가 봐도 되는거고. 그럼 名稱問題인데 이 名稱問題는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잘 研究하면, 아까 그런 立場과 姿勢로 잘 研究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問題 討論하고, 네번째 問題, 이거 우리는 唯一팀 選手 選拔 原則과 方法 이걸 提起했습니다. 貴側도 그렇지요? 選手 選拔 입지요?

南(張忠植): 예, 저희들은 選手團 構成 問題인데……

北(김형진): 우리가 提起한 것은 우선 이 選手 選拔 原則과, 이 選手 選拔 原則이 唯一팀 構成에서 核입지요?

南(張忠植): 아, 그렇지요.

北(김형진): 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選手인데 그걸 先次에 놓고 뭐 해야지, 아 뭐 다른거야 있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잘 싸워야 祖國의 名譽가 빛나고 民族의 榮譽가 빛나는 건데, 그래서 選手 選拔 原則을 먼저 討論합니다.

우리는 選手 選拔 方法에서 原則을 定立했습니다. 原則을 定立했는데, 큰 넷째의 반팔호 첫째 選手 選拔 原則을 制定했습니다.

選手 選拔 原則에 첫條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北과 南에서 가장 優秀한 選手들을 選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이거 뭐 貴側에서 지금 다른 意見 없습니까? 가장 優秀한 選手 選拔한다는 것……

南(張忠植): 아, 그건 뭐 저희가 提案한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選手團 構成問題에 있어서 우선 그 團長과 副團長을 내는 것을 이제 그 選手의 數에 맞추어서 이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貴側에서 選拔問題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건 뭐 말씀이 좋은데요……

北(김형진) : 張先生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처럼 이게 核이니까. 우리가 뭐 그 選手團 構成에 團長 내오고 뭐 任員을 내오고 貴側에서 말한 任員인데……

南(張忠植) : 아, 그거 좋습니다. 예.

北(김형진) : 그건 뭐 한 다음에 해도 일없는 것이고……

基本의 核이야 選手들인데 反對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우리가 합시다.

南(朴秀蒼) : 아니, 團長님! 제가 이거 質問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北(김형진) : 예, 말씀하십시오.

南(朴秀蒼) : 『北과 南에서 가장 優秀한 選手들을 選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하니까, 예를 들어서 南과 北의 選手들이, 團體競技 예를 듭니다, 게임을 해서 이긴 팀 全部가 어느 한쪽으로 構成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南과 北에서 가장 優秀한 選手라는 의미는 하여튼 게임을 해봐서 이긴 選手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쪽에서 優秀한 選手, 북쪽에서 優秀한 選手 이렇게 해서 한팀을 構成한다는 그런 意味입니까?

北(김형진) : 가만, 다 말씀했습니까? 이건 原則입니다, 原則.

南(朴秀蒼) : 아니, 그러니까.

北(김형진) : 제 말씀 들으십시오. 듣고 의문나는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南(朴秀蒼) : 예.

北(김형진) : 原則을 定立했습니다. 어떤 原則에서 選手를 選拔해야 하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選手를 選拔할 때에 이런 原則에 脫線되지 않도록 選手를 選拔하자는 이런 原則을 定立한 겁니다.

그래서 『北과 南에서 가장 優秀한 選手들을 選拔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이 뜻은 무엇인가? 말뜻이 그대로입니다. 北에서 가장 優秀한 選手, 南에서 가장 優秀한 選手 이렇게 唯一팀을 構成해야 民族의 슬기와 榮譽를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선생 말씀하는데서, 選拔戰을 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여기 選拔方法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南(張炳朝) : 뒤에 나오지요. 네, 맞아요.

北(김형진) : 그건 方法이고, 이건 原則입니다.

그러니까 이 原則에 따라서 選拔戰을 하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 뒤에 方法이 있단 말입니다.

南(張忠植) : 그러니까 지금 우리 朴代表께서는 그것을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北(김형진) : 理解할만 하십니까?

南(朴秀蒼) : 예.

北(김형진) :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理解하십시오.

자, 이 原則에는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제일 센 사람이 競技에 나가야 이기지 않습니까?

南(張忠植) : 그야 물론 그렇죠.

北(김형진) : 그래서 그것을 定하자는 것입니다.

南(張忠植) : 그러니까 그 가장 優秀한 選手를 어떠한 方法으로 뽑아 내

느냐, 選拔하느냐 그것이 이제 내가 볼 때는 問題의 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北(김형진) : 아, 核입죠. 그래서 우리는 첫 條項에 넣었습니다.

두번째 原則, 『北과 南사이에 民族的 和解와 團합을 이룩하는데 寄與하는 原則에서 選拔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會談卓에 마주 앉을 때야 이것이 貴重하기 때문에 마주 앉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 다른 意見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首席代表先生님!

民族的 和解와 團합을 이룩하는 原則에서 選手를 選拔한다……

南(張忠植) : 네, 그거야 뭐……

北(김형진) : 그럼 이것은 既定事實化됐다고 나는 認定합니다. 벌써 우리가 會談場에 마주 앉을 때야 和解와 團합을 이룩하고 統一에 寄與하기 위해서 마주 앉은 것인데 이 原則은 自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南(張忠植) : 이젠 이제 우리가 選拔하는데 하나의 基本的인 常識問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北(김형진) :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40年동안 民族이 分斷이 돼서 격폐상태에서 誤解와 不信이 이때까지 어린 體育人들까지 뿌리깊이 심어져 있는데, 이제 처음 만나는데, 또 指導員들도 그렇고 이런 狀態에서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和解와 團합을 圖謀하도록 이렇게 하겠는가. 우리가 메달을 따고 民族의 슬기를 높이자는 것도 民族의 共同利益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條件에서 和解와 團합을 이룩하는데 原則을 두자. 이렇게 하면 사소한 基本選手 選拔問題나 여기에 附隨해서 제기되는 問題들도 和解와 團합의 見地에서 볼때는 아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原則이죠.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南(任台淳) : 사실 選手選拔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體育人들간에 스포츠競技를 통해 가지고 가장 優秀한 選手를 選拔한다. 體育을 하는 사람이면 이것이면 전부이지 거기에 和解와 團합의 原則이 또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選手나 또 되도록이면 貴側의 案을 보니까 兩側이 함께 參與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側도 和解와 團합의 精神에 의해서 團一팀을 構成하자.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南과 北이 함께 參與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單一팀을 구성을 하자 해 가지고 이제 오늘 이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것을 위해 努力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한 選手를 選拔을 한다는 한가지 原則을 큼직하게 정해놓으면 그것으로 足하지 이거야 基本精神 아닙니까? 이 會談에 임하는 基本精神이지 選手選拔에만 이 原則을 適用을 하고 다른데는 또 이 原則을 適用 안할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南北間에 基本的으로 마음속에 다져두면 되는 것이고 적어도 이제 具體的인 方法을 論議하기 위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鐵則이다 하고 내세울수 있는 것은 가장 優秀한 選手를 選拔한다. 뭐 이거 하나면 體育人들로서는 足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北(장 웅) : 야, 任台淳先生이 대단히 섬섬한 말씀하십니다.

體育人이면 體育競技에 나가면 다지.....

南(任台淳) : 아니 나머지가 基本精神 아닙니까?

北(장 웅) : 우리가 지금 唯一팀 構成하기 위해 會談을 하자는 것도 우리가 뭐 나가서 競技해서 금메달 따는 것도 重要하고, 國威를 宣揚하고

하는 것도 重要 하고, 그 다음에 우리 體育人으로서 우리가 民族앞에 그
래도 民族의 統一偉業을 성취하는데 그 어떤 한 몫을 寄與하자 하는
것이 나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競技에서, 競技나가면 다다……

南(任台淳) : 다라고 안했죠.

北(장 응) : 그런 섭섭한 말씀이 있는데 團結의 精神 그저 마음속에 다
저두면 된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南(張忠植) : 그런 뜻은 아니죠.

北(장 응) : 이젠 뭐 우리 定立된 原則은 뭐, 北과 南이 서로 이렇게.

南(任台淳) : 아니 내 얘기는 우리가 이 原則을 너무 복잡하게 設定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北(김세진) : 任先生! 우리 여러차례 같이 앉아서 이제는 다 舊面인데,
또 이제 뭐 任先生도 體育 잘 아시고 나도 뭐 體育專門家인데 이것
은 體育人으로서 생각하는 각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原則 두번째 民
族的 和解와 團합을 이룩하는 原則을 明記하자, 이 明記가 왜 필요한
가?

任先生은 이제 體育人이기 때문에 가장 優秀한 選手를 選拔하면 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우리가 좀더 앞을 내다봐야 되지 않
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體育을 하는것도 이제 首席代表先生이 여러번 반복
하셨지만 우리 民族을 위하는 體育이고, 民族의 利益에 모든 것을 복종
하는 것이 先次인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놓고 불적에 앞으로 唯一팀을 構成하는 過程에는 競技
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서로 여러 복잡한 問題들이 많이 提起될 수

있는데 이러한 問題들을 어떻게 解決하는가 하는 이런 基本尺度, 基本 자
막대기를 民族共同의 利益에 符合되게 處理해 나가자 이렇게 規定하는
것이 이모로 보나 저모로 보나 아주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기간 우리가 여러차례 이제 아까 다 말씀을 하셨지만 國際競技에
나가서 서로 競技를 하는 것들 보면 경기하다가 서로 衝突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 이게 體育精神이지만 누구나 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다 피하고
또 앞으로 이제 여러가지 實務的 問題들을 討論하는데서 꼭 이런 자를
規定해 놓고 이 原則에서 우리가 討論해 나가시면 問題討論이 바르고
또 옳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意味로 볼 때 이것을 해
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우리가 北과 南은 될수록 唯一팀에게 種目別로 北과 南의 選
手들을 다같이 넣는 그런 原則에서 하자고 規定을 했는데 이걸 다른 것
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唯一팀을 構成해서 물론 11次 아시아競技大會에 나가지만
이 競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體育競技가 있게되고 이러
한 條件에서 우리 民族의 體育를 빨리 장려하고 發展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수록 唯一팀의 目的과 使命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나라 體育
發展을 위해서도 그렇고 북쪽이 센 種目도 있고 어떤 것은 남쪽이 센
種目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이 센 種目は 남쪽의 選手들이 配合해서 남쪽의 體育技術을 빨리
發展시켜야 되겠고, 또 남쪽의 體育技術이 센것은 북쪽 選手들이 들어가

서 같이 서로 좋은 經驗과 또 技術을 議論하고 이렇게하면 아주 우리나라 體育技術을 빨리 世界的 水準에 올려세우는데 有利하지 않느냐 이런 폭넓은 생각으로부터 이런 原則들을 規定했는데, 이 原則이 어느 모로보나 어느 一方에 不利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南(張忠植) : 아니, 金先生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選手選拔에 대한 여러가지 條件의 意味는 團長님께서 앞에서 이 精神은 다 말씀하셨거든요.

또 저희측에서도 이 內容에 대한 말씀은 다 있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條項이 이미 다 말씀했는데 굳이 選手選拔 여기에 이것을 넣을 必要가 없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뭐 金團長님께서 말씀하신 그 主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理解를 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北(김형진) : 이거 두번째 原則을 制定한 뜻은, 여기에 任先生이 뭐, 조금 어렵다고 表現해야 할까?

다른 생각이 있지않나, 이렇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南(張忠植) :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具體案이 나올줄 알고 期待했는데 具體案이 안나오고 해서

北(김형진) : 그래서 나는 두번째 原則을 制定한 것도 그래요.

아까 首席代表先生께서 唯一팀 構成이, 말하자면 우리 民族한테 기쁨을 주고 和解와 團속에 이룩하는데 아주 좋은 것이라고 演說하셨습니다.

그러니까 唯一팀을 탄생시키자는 原則에서는 첫째는, 아까 우리 團旗 制定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까?

자, 民族의 志向이 統一이다 目標가 統一이다, 그런 것 만큼 거기에 寄與하도록 唯一팀을 構成하자, 그러자면 和解와 團合 이런 걸 이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唯一팀의 첫째가는 目的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예?

南(任台淳) : 좋은 말씀입니다.

北(김형진) : 그 다음에 두번째, 民族의 슬기와 영예를 떨치자니까 가장 優秀한 選手를 넣어야 한다. 이게 原則이고……

이런데 뭐 首席代表先生 演說에도 다 있고 또 우리 雙方이 다 앉아서 서로 理解하는 것도 和解와 團合을 이룩하자는데 目的이 있는만큼 이걸 넣었다고 해서 唯一팀이 弱化될 것도 없고 오히려 強化되고, 젊은 選手들 교양하는 데도 좋고 後代들에게 이걸 公開하면 또 아주 좋은 건데, 이 좋은 項目을 빼고 아까 任先生말하는 건……

南(張忠植) :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選手를 選拔하는데 여러가지 細部的인 條件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細部的인 條件을 내세워서 選手는 어떠한 方式으로 뽑는다. 예를 들면 우리측에서 한다고 하면 全 種目에서 選手를 選拔해야 되겠는데요. 반드시 全 種目に 걸쳐 選手를 뽑고, 또한 交換競技를 통해 南北이 相互往來하면서 選手를 뽑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立場인데요, 그러한 具體的인 것이 나와야 할텐데……

北(김형진) : 자꾸 理解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거 原則입니다.

이런 原則에 準해서 選手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方法이 서술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優秀한 選手를 뽑아 選手選拔에서 團合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은 原則이고, 이에 基礎해서 選拔方法을 어떻게 하겠는가?

貴側에서는 아까 方案에서 선발전을 하자는 方法도 있고, 우리는 各其 選拔해서 가장 優秀한 選手를…… 여러 方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準해서 方法理論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건 原則입니다. 原則하고 方法을 자꾸……

南(任台淳) : 한가지만 質問해 보겠습니다.

제 말씀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和解와 團合의 原則이라는 건, 우리가 和解와 團合을 하기 위해서 지금 單一팀을 論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基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質問하고 싶은 것은 다르게 아니고 選手選拔原則이라 해서 選手選拔과 關聯하여 和解와 團合原則을 굳이 提示하셨다, 이말이에요. 우리는 그 뜻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單一팀構成 自體가 民族的인 和解와 團合을 指向하는 그런 方向으로 전부가 고려가 되어야지 굳이 選手選拔原則에다만 이걸 두어 「무슨 原則이다」라고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雙方이 基本的인 精神을 서로 確認을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北(장웅) : 이제 任先生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唯一팀을 構成하자면 會談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아무래도 合意가 되면 文件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原則을 왜 定立을 해야 되겠는가? 選手選拔問題가 우리 지금 討議하는데서 核이지요. 그 이외의 問題는 크게……. 그래서 選手選拔問題에서 이 原則을 定立함으로써 一定한 基準을 만들어 놓자, 그 이외의 다른 事業들에서 이 基準에서 脫線이 없도록 하자는 意圖가 있

고, 여기에 처음 제기되는 것은 最優秀選手 選拔의 原則, 民族의 志向을 反映하는 原則, 세번째는 方法論的 原則 다시말해서 選手選拔에서 복잡한 問題가 없도록 말썹없이 하자는 이 方法論的 原則 이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반대할 理由가 없을것 같은데 ……

南(張忠植) : 貴側에서 選手選拔方式을 제시하시고 우리측에서 우리의 選手選拔方式을 제시하면 그걸 가지고 서로 比較해서 말씀이죠, 서로 좋은 點을 찾으면 되지 않겠는가?

任先生님 立場에서는 이미 우리가 團合과 團結의 精神아래서 이렇게 만나는 것인데 거기에 구태여 選手選拔하는데서 더 強調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지, 그쪽 말씀이 그르다는 것이 아니지요.

北(장 응) : 반대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아니고 다 보면, 政府間이나 이런데서도 論議가 되고 討議가 되어서도 마지막에 文件上으로 남기는게 重要한 거니까, 이걸 整理해 놓아도 特別히 다른 건 없을 거예요.

南(李學來) : 會議進行方法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큰 4번에 單一팀 選手選拔 原則과 方法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1項에 대한 얘기만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뒤에 項에 대한 숨어있는 內容이 노출되지 않은 狀態에서 이런 誤解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選手選拔原則이라는 것을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選手選拔方法에 대해서 具體的인 것을 말씀을 해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任代表께서 誤解하고 계신다든지 또는 任代表의 말씀을 貴側에서 誤解하고 있는 部分이 解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選手選拔 原則과 方法까지를 즉 意見을 말씀해보시고 나서 綜

합적으로 討論을 해서 結論을 내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南(任台淳) : 그렇죠. 方法을 討議하면 되는 것이지 原則을 가지고 우리가 時間을 보낼 必要가 없지 않겠어요?

北(김형진) : 아니, 아니. 任先生, 李先生도 그렇고 理解를 明白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原則을 制定하는 것은 아까도 내가 理解를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選拔方法에서 잘 풀리도록 脫線되지 않도록 하자면 무슨 問題를 設定하거나 또 어떤 事業을 일단 시작하거나 할 때는 기준자(尺)가 있어야 되고, 그 기준자가 바로 原則이 아닙니까?

原則을 놓고 아까 任先生도 首席代表先生도 말씀계셨는데, 和解와 團합을 이룩하도록 한다는데야 다르게 없는데, 이걸 넣었다 해서 唯一팀이 짜 그러지는게 있습니까? 또 이걸 넣었다 해서 優秀한 選手를 選拔하는데서 놓칠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 貴側에서도 이런 意向을 表示해서 마주앉은 만큼 이걸 넣어도 利롭지 않습니까?

南(張忠植) : 그런 精神은 이미 다 우리가 表現을 한거고, 그러니까 이제 選拔方法에 대해서 具體的인 方案이 나와서 서로 다른점만 좁히는데 뜻을 모으자는 그거지요. 그러니까 그거야 南北韓에 다 寄與할 수 있는 이러한 選手들을 選拔한다는 거야 雙方이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具體的인 案을 내주시고, 우리 立場에서는 전종목에 대해서 交換競技를 통해 優秀選手를 가려냈으면 좋겠다……

北(김형진) : 그건 原則을 制定하는 겁니까?

南(張忠植) : 方法이죠.

北(김형진) : 바로 方法으로 理解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提起하

는건 原則입니다. 首席代表先生님.

南(張忠植) :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精神인데, 精神은 이미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

北(김형진) : 그렇게 합시다. 首席代表先生! 選手選拔原則을 우리가 세 가지 提起하지 않았습니까?

貴側에서 選手選拔原則을 이때까지 우리가 제기한걸 미리 받아서 研究하고 나왔다면 대답이나 이해가 쉬울텐데, 오늘 첫 會談에 마주 앉아서 보다 보니까, 또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뒤에 무엇이 숨어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 原則問題를 우리가 提起한데 대해서 貴側에서 달리 理解하는 部分도 있고해서…… 다른 問題도 같습니다. 選手選拔方法도 이제 우리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측 意見이 다르고 貴側意見이 다르고 또 즉석에서 研究해보지 못하고 交換해서 봐야 할 形便이고 하니……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會談이 상당히 生産的이고 效率的이고 雰圍氣도 좋고해서 아주 좋은데, 우리가 提起한 案을 貴側에서 더 研究하시고 貴側에서 提起한 것 우리가 더 研究하도록 時間을 좀 얻읍시다.

그래야 뭐 摸索하고 意見도 좁혀나가고 이렇게 되는건데, 그래서 오늘 會談은 우리가 세번째 案件까지 討論한 것으로 하고 다음 會談에서 네번째 案件부터 討論합시다.

네번째 案件부터 討論해서 진지하게 研究하도록 하는게 어떻겠는가?

南(張忠植) : 우리의 選手選拔問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實質的인 것을 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選拔戰을 통해서, 交換競技를 통해서 말씀이죠.

北(김형진) : 말씀중에 안됐는데, 우리가 그쪽 發言文을 한통 받았습니
다. 받았으니깐,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가서 民族共同利
益의 見地에서 貴側의 意見을 존중해서 잘 研究하겠다 말입니다. 그러니
까 貴側에서도 우리가 案을 주었으니깐 잘 研究하시고 그 다음에 合意點을
摸索하면서 하나하나 協議해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選手選拔 말씀하시려
고 하는데, 오늘 會談은 이만 합시다. 다른건……

南(張忠植) : 좋습니다. 서로가 提案한 걸 書面을 통해서 서로 確認할 수 있
으니깐 가서 研究해서…… 다음번에는 언제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北(김형진) : 제가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會談을 그렇게 생
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만났지만 정말 마음이 통하고 이래서 오
늘 成果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口頭로 合意한 問題를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面에서 적지않게 合意點을 이룩했다고 생각합
니다. 이것은 비록 오늘이 첫 會談이지만 앞으로 우리 北南 唯一팀을
構成하는데서 아주 중요한 前提를 마련했다. 그래서 오늘처럼 合意點을
모아나가면 이여의 提起된 方案들도 이제 더 모색해서 合意點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삼 貴側에 勸告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虛心坦懷
하게 서로 相對方을 존중하고 信賴하고 이런 立場과 姿勢를 가지고 해
나간다면 앞으로 더 좋은 成果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南(張忠植) :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다듬어서 자세한 內容들을 내놓았습
니다.

貴側에서도 充分히 理解가 되시리라고 생각되는 內容이 담겨져 있으니,
오늘은 그저 서로 立場을 確認한 것으로 하고 그만 합시다.

北(김형진) : 이만 합시다. 이만하는데, 우리側이 내놓은 方案을 잘 研究해서 다음 會談에 좋은 結實을 맺도록 합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야 여러갈래의 다른 會談들에서는 걸어간다셈. 치고, 우리야 스포츠人인데 어디 냅다 달려봅시다. 그래서 會談 前例가 10次, 20次하는 남의 前例를 따를 必要도 없고, 우리 體育人式으로 2次에서 結束하면 대가 닥 結束해 치우고……

南(張忠植) : 꾸준히 努力하면 제가 보기에 좋은 成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北(김형진) : 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會談날짜를 定하십시다. 다음 會談을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側이 招請側이고 하니, 다음 會談은 研究하시고 하자면 充分한 時間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選拔方法이란 복잡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研究해서 좋은 案들을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하자고 좀 시간을 가져야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3月 28日 火曜日을 提案합니다. 3月 28日 火曜日 10時에 우리 「統一閣」에서 만납시다.

南(張忠植) : 좋습니다.

오늘 合意된 것 몇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團旗를 흰색바탕에 韓半島地圖를 그려넣는다는건 合意되었구요.

北(김형진) : 아까 合意되지 않았습니까?

南(張忠植) : 예. 그다음에 노래는 아리랑으로, 1920年代의 아리랑으로 하는 것으로 合意가 되었습니다.

北(김형진) : 그럼요. 合意되고…… 그래서 다음 會談에 3月 28日날 잘 研究하셔서 좋은 案들을 가지고 나와서 어디 한번 體育式으로 냅다 달

러서 洪勝데이프를 體育人이 앞장서서 끌어봅시다.

南(張忠植) : 生産的인 結實이 成熟되기를 빌겠습니다.

南(任台淳) : 오늘처럼만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北(김형진) : 아, 이렇게 해야죠.

北(장 응) : 조금 더 速度를 내야겠어요.

北(김형진) : 速度를 내야죠 이거.

자, 다음에 또 만납시다. 「統一閣」에서.

南(張忠植) : 大韓올림픽委員會 金鍾烈委員長께서 김유순委員長께 安否를 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北(김형진) : 예 알겠습니다.

南(張忠植) : 다음에 만납시다.

〈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

〈附 錄〉

代 表 團 記 者 會 見



< 代表團 記者會見 >

* 日時 : 1989.3.9 (木) 12:35 ~ 12:55

* 場所 : 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 發表 및 答辯 : 張忠植 首席代表

1. 記者會見文

오늘 3月9日 10時 正刻에 우리側과 北側 各 5名씩 해서 10名의 代表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會談時間은 約 2時間 10分, 12時 10分에 會議를 終了했습니다. 마는 오늘 우리側에서 提案한 것과 北側에서 提案한 가운데 몇가지는 서로 合意點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側에서 提案한 가운데 呼稱問題라든가 또 選手選拔問題, 選手構成問題 또는 經費負擔問題, 共同委員會 등등의 10가지의 問題에 대하여 저희들이 提案을 했습니다만 相對側에서 提案한 것 가운데 우리와 合意가 된 것은 우선 團旗에 있어서 「흰색 바탕으로 하자」하는 것은 서로 合意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韓半島地圖를 그려 넣자고 하는 것도 雙方이 合意를 보았습니다. 단지 團旗에서 雙方이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한 것은 우리는 綠色을 主張한데 比해서 北側에서는 黃土色을 主張을 했고, 또 이 呼稱問題에 있어서 合意를 못본 것은 우리는 國際적으로 通用되는 「KOREA」라고 하는 로마字로 表記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提案한데 대해서 北側에서는 「KORYO」(고려)라고 이렇게 表記를 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團歌, 所謂 單一팀을 構成하였을 때 1920年代 羅雲奎가 主演한 「아리랑」의 映畫에 主題歌로 나온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로 한다는 데 雙方이 合意를 보았습니다.

會談의 氛圍氣는 雙方이 政治的인 內容은 전혀 言及이 없었고 比較的 스포츠人다운 이러한 화기에애한 氛圍氣속에서 會談이 進行이 되었습니다만 세번째 論議되는 選手選拔問題에 있어서 우리側은 보다 具體的인 案을 내어서 事前에 選拔競技를 통해서 交換해가면서 全 種目に 걸쳐서 選手選拔을 하자 이렇게 提案한데 대해서 北側에서는 事前에 訓練을 하고 나중에 競技를 통해서 選手를 내자 하는 이러한 意見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展望을 본다고 하게되면 이러한 選手選拔問題는 큰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겠습니다마는 가장 核心되는 것은 어떻게 呼稱을 만드느냐 이것이 雙方間에 異見을 좁히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過去에 저는 IOC가 仲裁한 南北體育會談에 參席한 經驗이 있습니다만 다른 體育會談의 經驗,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의 氛圍氣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體育會談의 氛圍氣는 저희들이 豫想한 것보다는 대단히 友好的이고 그리고 非政治的인 이러한 氛圍氣에서 南北代表가 만났다고 생각하고, 또 깊은 討議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일단 雙方이 提議한 이 問題를 가지고 가서 서로 檢討하고 研究해서 다음 3月28日 10時에 「統一閣」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約束을 했습니다.

혹 質問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2. 質疑・應答

質問 : 앞으로의 會談展望을 어떻게 보십니까?

答辯 : 오늘 몇 가지 案을 가지고 討議를 했기 때문에 樂觀하기도 어렵고 悲觀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과연 雙方이 서로 納得할 수 있는 그러한 提案을 하는데 重點을 둔다고 하면 比較的 會談이 잘 進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은 2가지로 보는데요, 結局은 選拔을 해서 거기에서 優秀選手를 가려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團合이라고 하는 이러한 前提下에 半半씩 이렇게 雙方의 優秀選手를 半半씩 만들어내느냐, 이러한 見解가 對立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豫想이 됩니다.

그 다음에 呼稱問題인데, 우리側에서 우리말 表記로 내놓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呼稱을 우리말로 낸다고 하더라도 北側에서 잘 안 받아들일 것 같고 그러니까는 國際적으로 通用되는 「KOREA」라고 하는 이 로마字로 우리는 提示했습니다만 만약에 굳이 우리말로 表記해서 이것을 定한다고 하게 되면 서로 雙方이 提示하지 않은 다른 第3의 이름을 創出해내는 方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合意가 된다고 하면 呼稱問題는 解決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質問 : 지금 말씀하신 것을 「조심스럽게 樂觀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答辯 : 글썽 樂觀할 수도…… 그건 제 하나의 느낌인데, 굳이 저쪽에서 既存에 主張하던 그러한 것을 撤回하고 또 우리 立場에서는 우리말 表記하는데 同意해서 第3의 表現을 創出한다고 하게 되면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質問: 그 두가지 問題만 解決이 되면 單一팀 構成하는데는 더 쉽게 될 것 같습니까?

答辯: 그렇게 簡單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北側 提案 가운데 또 團長問題가 있는데요, 우리는 팀이 形成되어서 效果的으로 國際大會에 나가기 위해서는 團長을 選手가 많이 選拔된 側에서 團長을 내세우고 그리고 選手數가 적게 選拔된 側에서 副團長을 낸다. 또 競技任員만 하더라도 競技任員은 種目別로 選拔하는 選手의 數에 따라서 選手가 많은 側이 監督을 내고 적은 側이 코치를 내도록 이렇게 提案했습니다만, 이게 同數로 만약에 團長을 두사람을 낸다고 했을 때는 北京大會에 나가서 現地の 組織委員會와의 여러가지 接觸이라든가 其他 여러가지 國際會議가 열리게 됩니다마는 거기에 參加하는 問題라든지 또는 選手團의 管理問題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우리側에서만 團長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選拔 競技를 통해서 그 選手構成 比率에 따라서 團長이 北側에서 나오든 우리側에서 나오든 그러한 伸縮性을 가지고 저희들은 提案을 했던 것입니다.

質問: 오늘 會談에서 말입니다. 北側에서 會談의 主導權을 잡으려는 그런 인상 같은 것은 받지 못했습니까?

答辯: 글썽 그것은 아직 뭐 2時間 10分동안의 會談을 가지고 이쪽이 主導權을 갖는다, 저쪽이 主導權을 잡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面에 저는 焦點을 맞춰서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단지 이제 選手選拔問題에 있어서 北側에서는 條項 보다는 理念面에 있어서 이리이러한 選手를 選拔하자 하는데, 이제 우리側 代表 가운데서도 좀더 具體案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表現에 差異는 있었습니다만 뭐 서로 主導權을 누가 잡는다 이런 것은 比較的 排除가 된 편이라고 느껴집니다.

質問: 準備라는 側面에서 北側에서는 「아리랑」의 테이프를 準備해왔다는가 또 團旗를 샘플로 가져왔는데 우리側에서는 이러한 準備를 못한 것으로 아는데요.

答辯: 아, 못한 것이 아니라 體育會談을 우리가 成事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案을 固定해서 이것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提示한다고 하는 것은 相對를 尊重하지 않는 것이다.

會談이라고 하는 것은 相對가 있으니까 大體的으로 우리의 意見의 輪廓을 表示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合意點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問題를 찾아내가지고서 우리가 固定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아리랑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게는 珍島아리랑도 있고 旌善아리랑도 있고 密陽아리랑도 있는데 덮어놓고 우리가 어떠한 1920年代의 아리랑을 이렇게 딱 提示를 한다고 하는 것은 相對의 意見을 尊重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는 뜻에서 또 우리도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한 過去의 무슨 「大韓」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러한 우리말 表記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것을 記錄을 하지 않은 것은 相對方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올지 모를텐데 彼此가 이 名稱問題라든가 團歌나 團旗는 敏感하게 反應을 나타내는 問題가 되어서 比較的 輪廓만 저희가 이렇게 나간 것이죠.

물론 우리가 韓半島 地圖에 푸른 색을 그려놓고 그 밑에 로마字로 「KOREA」라고 이렇게 써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딱 그렇게 固定해서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음에 會談을 갖는데 부드러운 氛圍氣를 造成하는데 저는 障礙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質問：豫想하기로는 北韓側에서 主要問題로 提起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韓美 合同軍事訓練問題를 한번 정도는 擧論하지 않겠느냐 하고 大略 豫想을 했었는데 전혀 擧論하지 않았다는 事實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또 그와 같은 脈絡에서 볼 때 北韓側이 2次會談 日字를 잡을 때에도 4月 10日 以後로 잡을 것이라는 豫想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3月 28日로 相當히 豫想보다는 앞당겨서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會談의 展望과는 어떻게 연관된다고 보십니까?

答辯：글쎄 相對側의 內容을 우리가 이렇게 推測해서 말하는 것은 會談代表로서는 꼭 어려운 立場이겠습니다만 軍事問題라든가 政治問題는 다소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 個人的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豫想을 했습니다.

또 저는 어디까지나 스포츠人的 한사람으로서 政治的인 그러한 對話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가질 생각을 안했고……

그런데 相對方에서도 우리側을 相當히 尊重해준 것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一切 軍事問題라든가 政治問題는 會議劈頭에서부터 전혀 나오지가 않았구요.

또 오늘 論議되지 못한 問題를 다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 할 때는 좀 會談日字가 늦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3月 9日이고 이달말쯤에 가서 말이죠, 28日날 하자고 提案한 것을 보면 北

韓側에서도 南北體育會談을 통해서 單一팀을 만드는데 어느정도 誠意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質問：兩側이 이제 眞心으로 誠意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時日은 비록 넉넉한 時間이 아님니다만 여기에는 相當한 進展이 있을 것으로 期待가 됩니다.

그런데 이 中에서 제일 어려운 問題가 우선 張忠植 首席代表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呼稱問題인데 말이죠. 呼稱問題는 맨먼저 우리가 論議에 들어간 選手團 名稱問題에서 한번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團旗에서도 英文表記, 거기에서도 역시 같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會談때는 말이죠. 會談이라는 것은 相對가 있기 때문에 北側에서 또 다른 意見의 提示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未決點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會談의 進行順序는 다시 呼稱問題부터 舉論이 되어서 進行될 것 같습니까?

答辯：그것은 會談에 臨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제 個人的 見解로서는 우선 쉬운 問題부터, 서로 意見을 좁힐 수 있는 問題點부터 우리가 對話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試驗問題를 풀 때도 쉬운 것부터 풀지 어려운 問題부터 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提案한 問題가운데 어려운 問題는 呼稱問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選手選拔問題에 있어서는 雙方이 서로 讓步하는 精神으로 나간다고 하면 比較的 接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차례 會談을 해야 呼稱問題가 接近할 수 있는 가망이 보이겠죠.

質問：그러면 2次會談을 北韓側에서 「統一閣」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3次會談을 할 때에는 서울·平壤을 오가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答辯：예, 그때 가서 이제 會談, 물론 會談節次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 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뭐 「平和의 집」과 「統一閣」을 往來하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과 平壤가서 하든지……

그런데 좀더 그 會談이 잘 되어가서 이것이 生産的인 會談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展望이 나오면 제 立場에서는 서울과 平壤을 往來하면서 이 體育會談을 公開的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보다 우리 民族의 어떤 團合의 精神과 또한 平和的인 그러한 環境造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부터 뭐 서울에서 하자 平壤에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제 立場에서는 당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質問：오늘 北側 團長은 『마라톤을 하지 말고 100 m 달리기를 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選手團 構成 및 訓練問題에서도 時限까지 提示하는 등 相當히 積極的이고 좀 무언가 빨리 하고싶은 그런 意志를 보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答辯：예, 彼此 性格의 差異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南北體育會談이 過去에 뭐 하나 成事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經驗을 土臺로 한다고 하게 되면 비록 오늘 會談의 霧圍氣는 원만하고 상당히 親近感이 감도는 그러한 霧圍氣였습니다마는 會談을 통해서 우리 兩側이 提示한 問題들은 그렇게 수월한 問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比較的 時間이 걸릴 問題가 아니냐 또 어느정도 雙方이 提案한 問題를 固執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面을 考慮해야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히 달리다보면 넘어지기가 쉬운 것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침착하게 그리고 雙方이 서로 損傷을 가져오지 않는 그러한 相扶相助하는 精神에서 해야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質問: 오늘 끝나기前 한 20~30分 동안에 상당히 論議를 했던 것이 原則問題에 있어서 「優秀選手를 우선적으로 選拔한다」 여기에는 일단 兩側이 다 合意를 했는데 두번째에 있어서 民族의 和合과 團結을 또 하나의 原則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選手選拔에 適用하자 이렇게 北韓側에서 提議를 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 任台淳代表께서도 재빨리 北韓側의 그것을 主張하는 어떤 意圖를 알아차리고 그 意圖가 아무래도 現在 南北韓의 選手競技力을 比較를 해보면 우리側 選手들이 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優秀選手 中心으로 하면 많이 될 것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北韓側 選手들도 適切하게 自身들의 要求에 맞게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繼續 主張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意圖로 이렇게 우리 任台淳代表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러한 問題도 相當히 서로 讓步를 하지 않는 限 상당히 呼稱問題 以上으로 힘든 問題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KOC 立場에서는, 會談代表 立場에서는 本來 KOC가 意圖했던대로 우리가 올림픽도 치렀고 그 다음에 스포츠部門에서 相對

的으로 越等히 앞서있고 그렇기 때문에 大幅 讓步한다는 그런 精神에 立脚해서 會談에 臨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北韓側의 意圖가 만약 그게 정말이라고 한다면 그와같은 立場에서 大幅 내지는 어느정도 線까지는 讓步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答辯 :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南北體育會談을 통해서 單一팀을 만드는데 이것은 저희 會談代表로서는 最善의 努力을 기울여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國際的 慣例라든가 또는 우리 國內에서 對外的으로 選手選拔하는 이러한 利害라고 하는 것을 전혀 無視해서 만약에 同數로 팀을 構成했을 때는 대단히 그 팀의 弱化를 自招해서 南北이 單一팀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北京大會에 나가서는 전부 우리 單獨으로서 지난 86 아시아大會 때 거둔 實力보다도 더 형편없는 結果를 가져온다고 생각되었을 때, 單一팀을 만들었는데 北京大會에 나가서는 뭐 5等, 6等으로 이렇게 형편없는 成績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考慮는 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政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스포츠하는 사람의 立場에서의 그 팀의 強化라고 하는 것, 더구나 南北이 單一팀을 만들었을 때에는 民族的인 團合도 되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南北이 單一팀을 만들어 더 강한 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강한 팀을 만드는데 어떠한 方法을 생각해 내느냐 이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는 北韓側의 完全한 意思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저희들의 이러한 생각도 北韓側에서는 理解를 하고 또 北韓側에서

좋은 選手를 우리와 더불어 이렇게 選拔해 가지고서는 뭐 합쳐서 만드
시 되어서 이것이 우리 期待 以上の 單一팀이 된다고 하면 그 이상 더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會談의 技術的인 問題와 雙方 種目에 따라서 그 技
術의 差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北側 代表께서 말씀한 가운데 그들도 우리의 長點을
배우고 또 우리도 弱한 팀은 北側의 強한 팀의 것을 배우면 좋지않겠
느냐. 이렇게 해서 事前訓練을 하고 나중에 팀 選拔을 하자 하는 이야
기도 나왔는데요. 결코 北側의 意見이 根據가 없다고 無視할 수는 없
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以外에 다른 質問이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